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를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33호

Saturday, June 1, 2024 A

‘유죄평결’ 트럼프 “사기재판에 항소할것”

간밤에 3천900만 달러 후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1일 성추문 입학음 돈 제공 의혹 관련 회계장부 조작 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데 대해 재판이 “매우 불공정했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결이 나온 지 하루만인 이날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우리는 이 ‘사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11월 대선에서 자신과 맞설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자신의 정적들을 겨냥해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며 “조작된(rigged) 재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건 담당 재판관인 후안 미첼 판사에 대한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은 사실, 자신에 대한 함구령, 함구령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을 잇달아 거론한 뒤 전날 유죄 평결에 대해 “감옥행 위협을 받았다”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변호사 토드 블랑쉬와 에밀 보브와 함께 지난 29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형사재판에 출석했다. [로이터]

주장했다.

또 “당신들은 내 편에 있었던 몇몇 증인들에게 일어난 일을 봤을 것”이라며 “그들은 말 그대로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불공정한” 재판이 “바이든과 그의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며 “그는 미국 역사상 최

악의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여론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유죄 평결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의 경쟁자인 자신에 대한 정치적 박해였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유죄 평결’을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를 향한 선거운동 기회로 반전시키려는 모습으로 풀이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이민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대거 몰려오고 있다고 지적한 뒤 “대통령과 파시스트 그룹들은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 평결 이후 지난밤 사이에 소액 기부가 쇄도하면서 10시간 동안 3천9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주장했다.

30여분간 진행된 이날 회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만 진행됐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없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학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총 12명)은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제기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유무죄의 결정 권한을 가진 배심원단이 유죄를 결정함에 따라 재판 담당 판사인 후안 미첼 판사는 오는 7월11일 형량을 선고하기로 했다.



레이건 공항 이륙 중지 사태 충돌 위기 6주만에 ‘또 발생’

워싱턴 레이건 공항에서 또다시 여객기 이륙중지(abort) 사태가 발생했다.

연방항공국(FAA)는 지난 29일(수) 오전 레이건 공항 활주로를 이륙해 보스턴으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2134편 여객기가 관제탑의 긴급 명령으로 발진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FAA는 만약 이륙했다면 공중 충돌 현상이 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라이브ATC닷컴이 공개한 관제탑과 조종사 간 통신 녹취본에 따르면, 관제탑에서 “아메리칸 2134, 이륙을 중단하라”는 말이 나오고, 조종사는 “아메리칸 항공 2134 이륙을 중단한다”고 답했다. FAA는 즉각 조사권을 발동해 조사관을 파견한 상태이며 레이건 공항 측은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옥재 기자

북, 사흘째 GPS 교란 전파... 군 당국 “북풍 예보, 오물 풍선 또 날릴 듯”



지난달 30일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600mm 구경 방사포를 발사하며 ‘위력시위사격’을 진행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 방사포 18문 사격 모습 공개 정부 “북한 도발 멈추지 않으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 취할 것”

북한이 지난달 31일 사흘째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전파 공격을 감행했다.

지난달 28일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대량 날려 보낸 것을 시작으로 GPS교란과 미사일 발사 카드를 번갈아 꺼내며 도발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공언한 ‘강대강’ 대적행동노선을 실제로 보여주는 동시에 주민들

의 내부 결속까지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31일 오전 8시를 전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서북도서 일대에서 GPS교란 신호가 탐지됐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GPS 교란으로 인한 군사작전 제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에선 지난달 29일부터 인천 해상을 오가는 여객선과 어선의 내비게이션이 오작동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계 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31일 오전 5시까지 접수된 GPS 수신 장애 신고는 780건에

달한다. 북한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대남 공세에 골몰하는 만큼 우리 군도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북한에 다른 특이 도발 징후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일일 다시 살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6월 1일부터 북풍이 예고돼 대남 오물 풍선이 예상된다”며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오물 풍선이 부양되면 언론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영교 기자 >> 2면 ‘북한’으로 이어집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재입
순금 야기 플랜지링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려고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건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 **410-480-0083**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가 맞다”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증여세 완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1일 “징벌적 성격이 강한 종부세는 폐지가 맞다고 본다”며 “야당이 종부세 폐지 검토에 나선 만큼 국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연찬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할 것”이라며 “종부세를 단순 폐지할 수도 있고, 재산세 체계를 조금 변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종부세 폐지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배경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종부세 완화 주장이 꼽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초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에 실제 거주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플랜 차원 띄워 여권 “세제 개편 추진 동력 얻었다” 당정, 상속·증여세 완화도 추진 나서

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강벨트를 지역구를 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종부세를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영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24일 고민정 의원)는 주장이 뒤따랐다. “종부세 관련해서 당내 논의가 불가피하다”(진성준 정책위의장)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 이슈를 띄운 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플랜과 관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상대적으로 많은 한강벨트 서울 자치구 7개 전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졌다.

여권은 민주당의 분위기에 올라타,



윤 대통령,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환담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줄리우스 마아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환담하고 있다. 두 정상은 이날 양국 간 무역·에너지 등에서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4-5일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25개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사진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추 원내대표)고 말한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여소야대 구도에서 세제 개편을 스스로 추진할 동력이 약하던 차에 민주당이 분위기를 띄워

부담을 덜었다”며 “이번 기회에 중산층에게 부담이 되거나 이중과세적 요소가 있는 세제는 손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가 2005년 도입 이래 민

주당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으로 여겨졌고 지지층의 호응도 있었던 만큼, 민주당의 최근 움직임이 진심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추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흔히 말하는 대로 간보기를 위해 던지고 논쟁하듯이 하면서 다시 역공으로 부자 감세를 들고나오는 ‘겉다르고 속다른 제안’으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한 배경이다.

당정은 종부세 폐지에 더해 상속·증여세 완화도 이참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는 “상속 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정·강보현 기자

이재명 “7일까지 꼭 원구성 완료” 추경호 “이러니 1인체제 말 나와”

22대 국회 임기가 5월 30일 시작됐지만, 제 역할을 하기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당장 국회 원 구성의 핵심 쟁점인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조금도 좁혀질 기미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에서 “국회법에 따라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꼭 마쳐야 한다”며 “소수가 뭉치를 부리거나 부당하게 버틴다고 해서 끌려다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여당을 마냥 기다릴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와관련, 강유정 대변인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문화체육관광위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4개 상임위 외에도 국토교통위원장도 우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사수 1순위’로 정한 법사



이재명



추경호

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보내는 관문 역할을 한다. 만약 법사위원장이 버티기에 들어가면 192석 법안이 추진하는 법안이라도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패스트트랙 등의 우회로를 거쳐 11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관장하는 핵심 상임위다. 그간 국회 관례는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은 야당(또는 제2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여당이 버티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상임위원장

직을 내놓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당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정무위 등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갖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며 “다만 법사위를 우리가 가져갔을 때의 얘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팔짝 뛰곤 있지만 수적 열세로 역부족인 상황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31일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하지도 않았는데 이 대표가 먼저 원 구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보는 상황”이라며 “이러니 국민이 민주당이 이 대표 1인 체제라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부적으로 법사위와 운영위를 둘 다 내주면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할 길이 없다는 우려가 강하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는 건 의회 독재 선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21대 국회는 47일 만에 개원했는데 180석 민주당이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출발했다. 1년 2개월 후야야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나뉘었다. 후반기 국회에서 운영위·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 됐다.

손국희·전민구 기자

▶1면 ‘북한’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대국민 안전조치를 최우선으로 강구할 것”이라며 “대남 오물 풍선이 부양되면 낙하물에 유의해 주시고, 오물 풍선을 발견할 경우 만지지 말고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최근 대남 도발은 남북관계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임출경 경남대 국문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의 ‘두 국가 관계’ 선언 이후 대남 적대 의식·주적관을 강조하는 것과 연관된 측면이 있다”며 “대남 위협은 물론 주민 적개심 고취를 통한 내부 결속까지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0일 남측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적들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력 사용을 기도할 때에는 언제든지 자위권을 발동해 선제공격도 불사할 우리의 대응 의지를 명백히 보여주기 위한 초대형방사포병 구분대(대대급)의 위력시위사격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번 사격이 김정은의 명령·

지도 따라 진행된 무력시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우리를 건드리면 어떤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남용”이란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신문은 또 “포병들은 사거리 365km의 섬 목표물을 명중 타격하고 부과된 위력시위사격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면서 일일로 늘어난 초대형방사포 18문이 일제히 사격하는 모습과 알설명으로 보이는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여러 장 함께 공개했다. 남쪽으로 방향을 틀면 육·해·공군 분부가 주둔하고 있는 계룡대와 주한 미군 공군기지가 있는 군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비행장이 사정권에 포함된다.

북한의 초대형방사포는 한·미 정보당국이 KN-25라는 코드명을 부여한 사거리 400km의 SRBM이다.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무기로 북한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전쟁 주도권 쟁취의 중대한 사명을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 하에서도 신속 정확히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영교 기자

워싱턴 날씨 (°F)

2일(일)	77-65	5일(수)	78-69
3일(월)	83-62	6일(목)	78-66
4일(화)	83-65	7일(금)	80-63

6월 1일(토) 81~63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REALTY1 MARYLAND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후원 투척 리스팅**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SOLD Bowie \$645,000 싱글홈, 방4, 화4, 차고2	UNDER CONTRACT Edgewater \$575,000 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	UNDER CONTRACT Rockville \$280,000 콘도	UNDER CONTRACT Elkridge \$899,000 싱글홈, 방5, 화3.5, 차고2	UNDER CONTRACT Odenton \$365,000 타운홈, 방3, 화2
SOLD Cooksville \$1.3Million 싱글홈, 방6, 화4.5, 차고3 Finished Basement	UNDER CONTRACT Ellicott City 55+ Luxury \$425,000 콘도, 방2, 화2, 1,438sf	UNDER CONTRACT Ellicott City \$475,000 타운홈, 방2, 화2.5, 차고1	UNDER CONTRACT Rockville \$520,000 싱글홈, 방4, 화2	SOLD Cockeysville \$470,000 싱글홈, 방4, 화2.5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RENTED Elkridge 월 \$2,400 타운홈, 방3, 화3	RENTED Hanover 월 \$3,100 타운홈, 방3, 화2.2, 차고2, 전체마루	RENTED Germantown 월 \$2,400 타운홈, 방3, 화4	RENTED Glen Burnie 월 \$1,750 타운홈, 방2, 화1	COMING SOON Hanover 월 \$3,000 타운홈, 방3, 화3, 차고2	RENTED Odenton 월 \$2,500 타운홈, 방3, 화3, 차고
--	--	--	---	---	---

대학 홈페이지 잦은 방문도 주의해야

상당수의 대학이 지원자의 입학지원서를 보기도 전에 과거 인터넷 웹-브라우저 기록과 자원자 가족의 재정상태 기록을 수집하기 때문에 지나친 검색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 당국, 지원 전부터 정보 수집 인터넷 검색 패턴·재정상황 등 탐색



속 기록 등을 근거로 합격가능성을 저수화하는데 성공했다.

대학 당국의 발표 자료 등에 의하면 미국에서 최소한 44개 대학이 외부 컨설팅 회사를 고용해 예비지원자 단계에서 정보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학당국은 학생의 예비지원자 단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대학사정시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소송과 처벌을 면하기 위한 면피성 발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지원 사이트를 해매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학당국의 불

법적인 사전정보 수집으로 인해 대학 입학에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상당수의 대학은 학생의 재정상태를 미리 보지 않은 상태인 니드-블라인드 방식의 입학사정을 한다고 말하지만, 이럴 경우 가난한 학생이 선발되면 훨씬 더 많은 장학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전에 정보수집을 하고 재정지원이 필요없는 부유층 학생을 선발하려는 시도가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다. 대학입학이 아니라 개인 정보 보호 목적으로라도 위법적인 정보수집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방가족교육권리및개인정보보호법(FERPA)에 의하면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는 주립과 사립대학, 즉 미국내 거의 모든 대학이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외부 업체나 기관과 공유하려면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욱재 기자



지난 23일 회의에서 임원들이 골프대회 성공을 다짐하고 있다

메릴랜드 한인회 골프대회 열린다 “골프로 한인사회 화합 도모”

메릴랜드한인회(회장 안수화, 이사장 이세영, 수석부회장 김영후)가 마련하는 골프대회가 내일(2일) 오후 1시30분, 머스켓릿지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올 가을 열리는 메릴랜드 한인 축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대회장 장영란, 준비위원장 다니엘 김 씨 및 위원들은 대회의 성공을 통해 “메릴랜드 지역 한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유도해 더욱 끈끈한 한인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샷건 형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골프대회는 참가비 120달러(점심, 저녁 포함)이며 메릴랜드한인여성골프협회가 대행, 부가티 골프동우회(회장 김인덕), 메릴랜드골프협회(회장 김길영), 메릴랜드체육회(회장 오세백), 동중부장개인체육회(회장 남정길) 등의 협찬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홀 장타상(9번홀), 남녀 그늘집/근접상(8번홀) 남녀 그늘집/50:50(17번홀) 등 각종 수상기회 및 이벤트도 푸짐하게 준비됐다.

문의: 410-772-5393

장소: 3555 Brethren Church Rd, Myersville, MD (머스켓 릿지 골프클럽) 김윤미 기자



“모두가 주인공이었다”

글로벌어린이재단(GCF) VA 자선골프대회 성료

글로벌어린이재단(GCF) 버지니아지부(회장 김남숙) 주최 결식아동 돕기 자선골프대회가 지난 28일 버지니아 헤이마켓 소재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에서 열렸다.

샷건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

128명 선수들이 등록 했으며 허진 총무가 대회장을 맡았다. 이와 더불어 이철희, 헨리 엠 프로그가 대회진행을 이끌고 38명 GCF 임원 및 회원들이 봉사하며 성공적으로 대회를 이끌었다.

김남숙 회장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 해주어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한분 한분이 이날 대회의

주인공으로서 칭송받아 마땅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대회의 베스트 드레싱상은 김예림 씨가 수상했다. 노력상 연 반힐 씨, 남여 장타상은 최승민, 사론 씨가 각각 수상했다. 남녀 일반조에서는 바비 강, 오현주 씨 등이 입상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아이린 신 민주당 하원의원, 임소정 페어팩스 시의원, 손종락 버지니아지부 고문, GCF 본부 손영환 고문 등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김윤미 기자



제 83차 한미나라사랑기도운동연합회 이다윗 목사 ‘천국 열쇠를 사용합시다’

한미나라사랑기도운동연합회(회장 오쾌한 목사)가 28일 애난데일 소재 메시야장로교회(담임 한세영 목사)에서 83차 기도회 예배를 개최했다. 이날 예배 설교는 이다윗 목사가 ‘천국열쇠를 사용합시다(마태복음 16:16-20)를 주제로 설교했다. 한 훈 목사의 집례로 드려진 예배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오찬을 즐기며 교제를 이어갔다.

김윤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니!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니하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최신형 X-Ray 완비
교정 및 물리치료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월드미션칼리지 제 8회 학위 수여식

세계선교를 지향하는 월드미션칼리지는 2024년 6월 1일 신학사 4명, 목회학석사 3명 등 총 7명에 대한 제 8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합니다.

일시 2024년 6월 1일 (토) 오후 4시

장소 월드미션 칼리지
11400 Shirley Gate Ct., Fairfax, VA 22030

학위수여자

- ▶ 신학사: 박선경, 성지애, Juliana Lopes, Nguyen An Le Tong
- ▶ 목회학 석사: Jesse Kirobi, Ronald Moyia, Andrea Balogne

2024 Faculty

양광호 목사(Ph.D. & D. Min., President), 최윤환 목사(D.D., Vice-President), 김성우 목사(D. Min., Academic Dean), 김재홍 박사(Ph.D., Director of Students), 한창훈 목사(D. Min., D. Min Program Director), 최한용 목사(D. Min., M.Div. Program Director), 유영준 목사(D. Min. Cand., B. Th. Program Director), 박승신 목사(D. Min. Cand., Chaplin), 나동원 목사(M. Div.), 이정실 박사(Ph.D.)

Board of Trustee Staff 이사장 김치환 장로 (Chair, Board of Trustee), 이사 김진업 (Board of Trustee)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월드미션칼리지는 선교사 및 기독교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순수 신학교로, 온전한 신학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드미션칼리지에서는 케냐, 탄자니아, 가나, 몽고, 베트남, 중국, 브라질, 및 한국등 세계 여러곳에서 유학온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입학을 원하는 학생이나 외국국적을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중인 학생들에게 미국내에서의 체류를 위한 I-20발행이 가능합니다. 신학공부에 관심이 있거나 선교에 뜻이 있어 훈련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학교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에 대한 정보는 www.wmcgw.org에서 찾아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신입학 및 편입학에 관련한 문의는 admin@wmcgw.org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301-785-811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월드미션칼리지는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현재 TRACS Accreditation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꼭꼭 담은 '집밥' 이 최고 한식

지난 2009년 정부 주도로 한식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한식은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급성장 이면에는 부작용도 있다. 한식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국 고유의 식문화와 정통 한식의 색채가 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미술랭 식당 셰프, 레스토랑 비평가, 동네 식당 업주 등을 만나 한식 세계화의 문제점과 해법을 찾아 연재한다. 첫 주자는 이지연 셰프다. 이 셰프는 '바람이 멈추어도', '난 사랑을 아직 몰라' 등 히트곡의 주인공이다. 80년대 한국 가요계를 주름잡던 원조 하이틴 스타가 정통 한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셰프가 되었다.

17년차 셰프인 그는 현재 애틀랜타의 에어룸 마켓 바비큐 오너이자 주방을 책임지고 있다. 시그니처 음식은 남부식 바비큐에 한식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요식업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 상 후보에도 두 번이나 오른 실력파다.

-미국식 바비큐에 한식을 접목한 계기는.

"남부식 바비큐와 사이드 음식은 느끼하고 목직하다. 편안하고 개운한 음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강구했다. 정답은 한식이었다. 브리싯을 훈연하기 전 고기 곁에 고추장을 바르고 시즈닝에 고춧가루를 넣어봤다. 느끼함이 줄고 맛이 더 좋아지더라. '풀드 포크(pulled pork)' 샌드위치는 양념을 제육볶음 식으로 바꿔봤다. '코슬로(coleslaw)' 대신 김치를 넣어봤는데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의 맛은.

"미국에 가장 지배적으로 퍼져있는 한식의 맛이 바로 '단짠', 달고 짭짤한 맛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한식이 단짠의 맛으로만 치우쳐진 것 같아 아쉽다. 한식의 건강한 맛을 알려도 승산이 있다고 본다. 사찰음식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사찰음식은 한식과 건강한 맛을 동시에 알릴 좋은 기회다."

-퓨전과 정통 중 미국인들이 좋아할 한식은.

한식 세계화 15주년 진단②

가수 출신 17년차 셰프 이지연 애매한 퓨전보다 본질 더 중요 타인종들 정통 한식 수요 증분 국·나물 한상차림 널리 알려야



이지연 셰프가 본지와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식 세계화에 대한 소신을 전하고 있다.

"애매한 퓨전 대신 정통 한식이 낫다. 정통 한식에 대한 타인들의 수요는 충분하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퓨전 한식이 많아서 아쉽다. 컨셉의 재미도 필요하지만, 음식의 본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한식의 범위가 여전히 좁다.

"타인종들은 한식 하면 바로 한국식 고깃집부터 떠올린다. 언제부터 우리가 고기를 그렇게 먹었나. 어릴 때만 해도 생일이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나 고기를 먹었다. 개인적으로 백반을 정말 좋아한다. 오래 끓인 국, 맛있는 쌀밥, 나물 반찬, 잘 구운 생선처럼 집밥 같은 음식이 우리가 가장 많이 먹던 한식이다. 이러한 한식은 우리의 밥상 문화, 가족 문화, 역사 등 이야기가 담겨있다. 미국인들이 스토리를 좋아하지 않나. 집밥 같은 한식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

-한식의 강점과 약점은.

"한식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는 말 못한다. 다만, 오감을 자극하는데 최고의 음식이라고 생각한

다. 맛의 균형은 물론, 냄새, 미적 요소 등 전반적인 밸런스가 좋다. 약점으로는 손이 많이 간다. 한식의 매력 중 하나가 바로 반찬인데, 만드는 데 손이 많이 간다."

-어떻게 약점을 보완할 수 있나.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 타인종들은 한식을 가성비 음식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한식당들이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한다. 결국 반찬에 영향을 끼친다. 다양한 반찬을 만들어 제공하려면 비용이 더 든다. 한식의 위상이 높아지면 음식하는 사람도 가격 인상이 부담이 덜하고 양질의 반찬을 제공해 반찬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다."

-한식이란 무엇인가.

"오감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한상차림이 한식을 가장 잘 설명하지 않나 싶다. 한상차림이 대중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으면 좋겠다. 전 세계에서 외국인들에게 전해지는 한식이 그랬으면 좋겠다."

김경준 기자

4월 들어서도 경제 소폭 확장

금리 인하 지연 전망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활동이 4월 들어서도 확장세를 이어갔다는 연준의 진단이 나왔다.

연준은 29일 발표한 5월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에서 국내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담당 지역 중 대부분 지역에서 소폭(slight) 내지 다소 완만(modest)한 성장세가 이어졌으며 이처럼 평가했다. 2개 지역에선 경제활동

에 변동이 없었다.

소매지출은 변화가 없거나 지역에 따라 소폭 상승했다. 경기변동에 민감한 임의 소비재 지출이 약화한 데다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이 반영됐다. 여가 목적 여행 및 사업 출장이 늘면서 전역에서 여행 소비가 강화됐으나 올해 여름휴가 시즌 전망에 대해선 조사 대상 접객업소들은 혼재된 반응을 보였다.

빚빡한 대출 조건과 높은 금리 탓에 대출 증가는 제한된 모습을 보였고, 주택 수요는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진 것

으로 조사됐다. 고금리로 주택판매가 타격을 입은 가운데 단독주택 신규 건설은 증가했다고 파악됐다. 조사 대상자들은 경제 전망과 관련,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비관적인 전망이 다소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6월 11~12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나왔다. 앞서 연준 위원들은 최근 몇 달 새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는 금리인하에 대한 확신을 얻기까지의 기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바 있다.



연준은 4월에도 경기가 완만하게 확장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타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로이터]



경찰 총격 피살 양용씨 장례 엄수 한 생명이 허망하게 떠났다.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었다.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에 의해 총격 피살된 양용(40)씨의 장례식이 30일 할리우드 포리스트톤에서 진행됐다. 이날 장례식에는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씨의 죽음을 애도했다. 양씨의 아버지 양민박사는 "아들의 죽음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며 "정의 위해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애도의 발걸음은 이번 주말 집회로 이어진다. 장례식에서 조문객이 양 박사를 위로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티켓마스터 고객 5억6000만명 정보 유출

신상·카드정보 50만불에 내놔

글로벌 온라인 티켓 판매업체 티켓마스터의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그룹 사이니헌터스는 티켓마스터 고객 5억6000만 명의 정보를 훔친 사실을 온라인 포럼을 통해 공개했다고 CBS뉴스가 30일 보도했다.

사이니헌터스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일부 크레딧카드 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한차례에 한해 50만 달러에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웨스트할리우드에 본사를 둔 티켓마스터와 모회사 라이브네이션은 이 같은 해킹그룹



의 주장에 대해 아직 어떠한 성명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번 해킹 혐의는 웹사이트 해크리드와 후후에 본사를 둔 사이버테러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며 사이니헌터스가 판매하는 데이터의 진위에 대해서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후후 캔버라 주재 미 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호주 정부가 해킹그룹의 주장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연방수사국(FBI)이 호주 당국에 지원 의사를 밝혔다고 에이전스 프랑스-프레스에 전

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사이니헌터스는 2020~21년 사이에 60개 이상의 회사를 해킹해 고객 정보를 대량 유출하면서 악명을 떨친 전력이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티켓마스터와 라이브네이션이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불법적으로 독점해 경쟁을 방해함으로써 콘서트 관람객과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줬다는 혐의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티켓마스터는 지난 2002년 테일러 스위프트의 투어 티켓 판매를 잘못 처리함에 따라 대중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박희희 기자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용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용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마마트 건너편 위치)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2501870; MD 2501870; NC L-219065; VA MC-7782; TX 2501870; PA 106823;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 대장금(미역조물)
● 웨일링노래방

The Oriental

40

300m

● 뉴타운홈

미락조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은 뉴타운홈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트럼프, 세금인상 최대한 어렵게 ... 법으로 제정

프레드 플라이츠 AFPI 부소장

‘지방 납세자 보호법’ 보고서 발표
의회 3분의 2 찬성해야 증세 가능
트럼프 재집권시 시행할 정책 제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참여하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 우선주의정책연구소(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AFPI)가 지방정부의 납세 인상을 어렵게 만드는 취지의 ‘지방 납세자 보호법’ 추진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AFPI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시 추진할 국정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데다 트럼프의 일관된 철학인 감세 기조와도 맞물려 재집권시 정책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AFPI는 28일 공개한 ‘집 근처에서 시작되는 좋은 거버넌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식료품·가스·주택가격이 치솟고 중산층 월급으로는 생필품을 사기 어렵다”며 “전국의 국민들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지난 23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위치한 AFPI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알링턴=문진욱 기자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시민을 위해 좋은 거버넌스를 행사해야 하지만 상당수 지방정부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몇 가지 법제화가 필요한 정책을 제안했다.

AFPI는 우선 ‘지방 납세자 보호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법은 지방정부가 세금을 인상하기 전에 지방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금 인상을 최대한 어렵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는 ‘작은 정부론’을 펴는 공화당 당론에 부합하지만 ‘재정 확대론’을 펴는 민주당은 강하게 반대해 다름이 예상되는 첨예한 사안이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세가 강한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납세자 보호 법안”은 납세자들을 보호한다는 기만적인 기치를 내걸어 주민들에게 결과적으로 도로·물·공공안전 서비스에 돈을 더

내게 함으로써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부른다”며 ‘납세자 보호 법안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AFPI는 “지방정부 예산 회의 때 지역 주민들이 목소리를 낼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며 법안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AFPI는 ‘납세자 투명성 법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예산 지출 금액 등 기본 사항 외에도 ▶예산 프로그램의 목적 ▶예상되는 성과 ▶감사 결과 등 예산 관련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내용이다. 공공 예산 회의의 실시간 공개도 포함된다. AFPI는 “납세자는 주의회의 입법 과정뿐만 아니라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지출되고 어떤 성과를 달성하게 됐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FPI는 ‘예산 절감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AFPI는 보고서에서 “정부 기관의 오래된 문제 중 하나는 공무원들이 기관 예산 삭감을 두려워해 예산 절감 방안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예산 순절

감 효과를 가져오는 제안을 하는 공무원에게 직접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에서 AFPI는 ‘노숙자 위기 완화법’도 제안했다. 지자체가 적절한 권한이나 자원 없이 불법 외국인이나 노숙자를 위한 임시 거주지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AFPI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 보안 의무를 포기해 전국의 도시들이 혼란을 겪게 했다”며 “국경 혼란의 위기는 이제 대도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주변 지역 사회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를 차단하기 위한 국경 장벽 건설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전 대통령 구상과 일치한다.

AFPI는 트럼프 대선 캠프의 주요 공약을 마련하고 재집권시 곧바로 시행할 정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 단체가 최근 펴낸 정책 제안집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미국 우선주의 접근법’은 트럼프 재선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로드맵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성탄=김형구 특파원**

첫 세금보고, 편지가 왔다 “IRS로 직접 오세요”

‘IRS 어시스턴스’ 체험기

소셜번호 도용 때나 무작위로
정보 확인하는 매우 드문 일
워크인 꼭꼭 앓는 줄에 포기
20마일 달려가 겨우 끝냈더니
“문제 있으면 추가 방문 필요”

국제청(IRS)에서 온 편지 한장이 우편함에 있었다.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마쳐 곧 환급금을 주겠다는 내용이라니 마뽀 집착하고 책상 한 곳에 밀어뒀다. 세금보고를 한 지 2달이 지나도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받은 지 2주 만에 봉투 속의 편지를 읽었다.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개인정보를 확인해야만 세금보고를 처리할 수 있

다며 IRS 어시스턴트를 만나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결격사유가 있어서 환급을 받지 못할 거라는 의심을 하지 않았던 터라 편지를 받고 당황했다.

일단 소득세 신고를 대행했던 공인회계사(CPA)에게 연락했다.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데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도용됐거나 IRS가 무작위로 선택해 정보를 확인하는 차원일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IRS 사무실을 방문하라고 했다.

IRS 웹사이트에 보니 예약 없이 IRS를 방문할 수 있는 토요일은 4월 13일과 5월 18일이었다.

4월 13일 오전 8시 30분 LA다운타운 IRS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 줄보다 긴 줄이 눈앞에 펼쳐졌다. 접이식 의자나 도시락을 준비한 사람들도 보였다. 한마디로



예약하고 방문한 밴나이스 IRS 사무실 건물 전경.

IRS 직원을 만나려고 기다리는 납세자들로 북새통이었다.

사무실 오픈 30분 전에 도착했지만, 주차 공간이 없어서 빌딩 주변을 3바퀴나 돌아야 했다. 결국 근처 몰 주차장에 15달러를 내고 주차한 후, 빌딩을 둘러싼 긴 줄 맨 뒤에 섰다. 다른 대기자에게 물으니 오후 4시는 돼야 입장할 수 있거나 아예 못날 수도 있다고 했다. 2시간을 기다린 끝에 대기자 수가 거의

줄지 않아서 포기했다. IRS에 전화를 걸었다.

IRS 텍스어시스턴스 서비스센터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IRS 직원은 꼭 대면 미팅을 통해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IRS 직원은 두 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하나는 가까운 IRS 사무실에 워크인으로 방문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약을 잡고 방문하는 것이었다. 이미 끝도 없이 늘어선 줄을 보고 대기해 봤기에 예약했다. 그런데 인근 IRS 사무실은 6월까지 모든 예약이 꽉 차 있었다. LA한인타운에서 20마일이나 떨어진 밴나이스 사무실만 방문이 가능했다. 또한, 예약 방문은 월~금요일만 가능했기에 휴가를 내고 IRS 사무실을 찾아가야 했다.

밴나이스 IRS 사무실은 LA다운타운에 비하면 한적했다. 건물로 들어가서 가방 검사를 한 뒤에서야 드디어 IRS 사무실에 발을 들일 수 있었다.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다 보면 대형 화면

에 번호와 창구 번호가 뜬다. 5명 정도가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1번 방으로 들어가서 여권, 2023년 세금보고 양식 1040, 운전면허증, IRS로부터 받은 통지서를 제출했다. 신분 확인까지 1시간 30분이 걸렸다.

IRS 직원은 “신분 도용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첫 세금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분 확인 목적의 대면 미팅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IRS에서 세금 기록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환급이 처리되고 문제가 발견되면 추가 방문도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2월 14일 설레는 마음으로 첫 세금보고를 했다. 일반적으로 21일 이내에 처리된다고 하기에 온갖 사고 싶은 물건들을 온라인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앞으로 7월 중순까지 더 기다려야 한다니 씁쓸했다.

글=사진=정하은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의 절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시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책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매칭,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Care People Home Health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RN 간호사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7/8 ~ 7/12 → 전화 예약 필수!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 버지니아와 남 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entreville (Main Office)	Annandale (사랑방)	Annandale (V)	Richmond	Gaithersburg (MD)
14631 Route 29 (Lee Hwy) #401 Centreville, VA 20121	4306 Evergreen Ln. #104 Annandale, VA 22003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케네디 “매우 비민주적 평결...민주당에 후폭풍 올 수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학음 등의 의혹과 관련,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을 놓고 가족들도 잇달아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들 부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ABC 방송에 보낸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미

국을 제3세계 ‘거지소굴(sxxxhole)’로 만들려는 오랜 시도에 성공했다”며 “(대선이 열리는) 11월 5일이야말로 미국을 구할 마지막 기회”라고 규탄했다.

차남 에릭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린 글에서 “2024년 5월 30일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애초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이번 평결에 대해 “미국은 삼권분립을 훼손하거나 법원을 무기화하지 않고도 투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을 자격이 있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는 “민주당은 투표에서 질 것이 두려워 법정에서 트럼프를 쫓고 있다”며 이번 평결은 매우 비민주적인 것이며

민주당에 후폭풍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반목해온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 기소는 애초에 제기돼선 안 되는 것”이었다며 “항소심에서 유죄 평결이 뒤집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반면 보수 진영의 ‘반(反) 트럼프’ 주자 가운데 한 명이자 메릴랜드 공화당 상원 후보로 선출된 래리 호건 전 주지사는 “정당에 상관없이 모든 지도자는 해로운 당파 싸움에 더 이상 기름을 부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근간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법치”라고 주장했다.

맨친 상원의원 민주 탈당 “민주·공화 모두 당파적 극단주의”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해오던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이 31일 탈당했다.



맨친 연방 상원의원 [로이터 연합뉴스]

맨친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소속으로 등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미국을 뒤로한 채 당파적 극단주의에 빠졌으며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저는 당보다는 국가를 우선시하기 위해 무소속으로 등록했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상원의원으로 재직하던 맨친 의원은 상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바이든 정부의 국정 목표와 관련한 입법에 반복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민주당 내 야당 인사로 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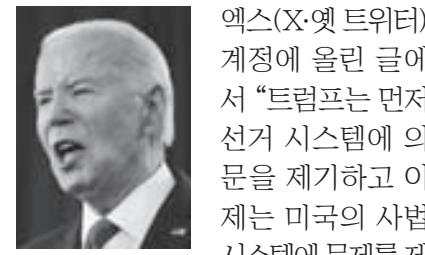
이미 그는 올해 11월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는 탈당 이후 향후 상원 투표 등에서 민주당과 함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

지 않았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민주당은 상원 의석 100석 중 맨친 의원을 포함해 48석을 갖고 있으며 민주당 성향 무소속 3명과 함께 다수당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맨친 의원이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 다시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맨친 의원은 이날 이런 관측도 부인했다.

바이든, 트럼프 ‘사기재판’ 주장에 “민주주의 위협...막아야”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은 31일 이른바 ‘성추문 입학음’ 사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 관을 ‘사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트럼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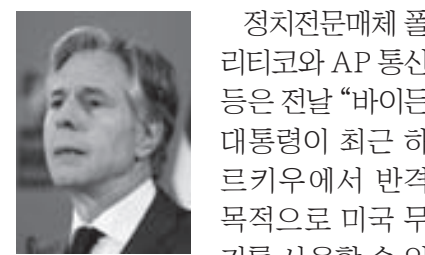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에 자신의 개인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여러분이 그를 막을 수 있다”면서 11월 대선에서 자신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낮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날 유죄 평결이 나온 재판에 대해 “매우 불공정했다”면서 “우리는 이 ‘사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 공식 확인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자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했다고 31일 공식 확인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AP 통신 등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하르키우에서 반격 목적으로 미국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팀에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사진) 국무장관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무장관 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무기를 사용한 러시아 내부 공격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받았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도 이날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다면서 미국·영국·프랑스와 협의했다고 발표할 바 있다.

이와 관련,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할 무기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중거리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GMLRS)과 야포 체계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컴스(ATACMS)는 러시아 본토 공격을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돈나 콘서트, 포르노 보는 듯했다”... 미국 관객 소송 제기

팝스타 마돈나(65)의 콘서트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관객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허위 광고, 정서적인 고통 등의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마돈나는 명백한 립싱크로 공연해 비싼 티켓값을 치른 관객들을 우롱했다고 리펠레스는 주장했다.

30일 온라인매체 블래스트와 연예지 TMZ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 캘리포니아 잉글우드에서 열린 마돈나 콘서트를 관람한 저스틴 리펠레스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자신을 비롯해 당일 콘서트 관객들이 마돈나와 공연 주최 측에 기만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일 오후 8시 30분 시작될 예정이었던 공연이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시작됐고, 마돈나가 무대에 오른 뒤에는 공연장의 에어컨을 꺼달라고 요구해 관객들이 더위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마돈나와 함께 춤을 추는 공연자들을 거론, “무대에서 성행위를 모방하는, 가슴을 드러낸 여성들을 보도록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객들을 덥고 불편한 공연장에서 몇 시간이나 기다리도록 강요하고, 경고 없이 그들을 음란물에 노출되게 한 것은 팬들에 대한 마돈나의 무례함을 증명한다”며 “마치 포르노

또 관객들이 에어컨을 다시 켜달라고 외치자 마돈나가 욕설과 함께 “나는 춥다. 당신들이 덥다면 옷이나 벗어라”라며 무시했다고 리펠레스는 전했다.

그러면서 “관객들을 덥고 불편한 공연장에서 몇 시간이나 기다리도록 강요하고, 경고 없이 그들을 음란물에 노출되게 한 것은 팬들에 대한 마돈나의 무례함을 증명한다”며 “마치 포르노



지난 4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공연하는 마돈나 [AFP 연합뉴스]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고 했다. 소장에 따르면 마돈나는 이날 공연에 지각한 것에 대해서도 “늦어서 미안

하다”라고 말했다가 “아니, 미안하지 않다. 그게 나다. 나는 항상 늦는다”고 말했다.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쉽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고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각별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 / 찰틀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lovespineclinic@gmail.com

바디프렌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머천트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연년대표 **703-354-1515**
 2층 소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6월 스페셜 Special SALE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 생활건강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급 로얄 앰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250 1+1**
 홍삼 로얄 앰플

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160 1+1**
 홍삼 로얄 본액

어머님들의 필수 건강식품

리튬 진한 레드 석류 콜라겐 **\$36 1+1**

광동 공진단 供辰丹

고귀한 분을 위한 명품

귀하다 귀한 사향을 사용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 공진단

추천대상

- 선진성 어약체질
- 월경이상
- 만성피로
- 두통
- 어지러움
- 체력저하
- 무력감

김오곤 침향 녹용단

400 \$199.99

이경제 황제신용단

대박 SALE \$400 \$159.99

광동 침향환

반세기 차고있고, 경동하 기술과 정성이 만나다

20% Sale

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하는 명인이 만든 무엇

맞이 필요 없는 명품

기침 가래 해수 천식에 최고

함양여주환

당뇨잡는 도깨비 방망이 함양 여주

당뇨, 동충, 콜레스테롤

AHCC가 혼합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간기능/면역력양성/암세포 사멸

FromBIO 위건강 멘 마스크

meditree 케번플러스

코팅식이섬유

차전자피식이섬유제품 대장사랑

대장사랑은 혈중콜레스테롤 개선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Nutridom Collagen

캐나다산 마린콜라겐

저분자 고급 피쉬 콜라겐

영신 생 로얄제리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 프로바카리

심한알러지 대상포진 독감예방 면역강화에 최고

항암, 면역성 강화, 경년기 증상 예방 뉴질랜드 초록입 홍합 하이퍼리프트

관절치료 통증완화에 최고!! + 프로플러스 한병 공짜

이름 키즈10

이름 황성주생식

징크크린 정

가장식 보충제 및 인산 함유한 인산염 3000mg

농협 한삼인 10% SALE

100% 홍삼즙 60포/30포

선삼

기력회복 / 면역력양성 / 만성피로

광동 짜먹는 경옥고

20% SALE \$159.99

100% PURE HONEYWAY 프리미엄 브라질산 그린 프로플러스

3+1 스페셜 \$40 \$120

세종 송보강

세종 속편한

공짜선물이 팡 팡

향풍정 홍삼 국내 최고 사포닌 8mg 풍기 홍삼액 골드

머리 혈액 순환 건강 비피헬스

심장, 뇌, 미세혈관 & 간 건강, 혈액 순환 건강

만성기침, 가래 CMORI 시모리

우메켄 전제품 판매

석류엑기스 / 나토키나제 / 리포포 베타글루칸 / 코소볼 EX / 흑마늘환 제도아리 / 제첩엑기스 / L칼슘 노니매실 / 엘라스틴뷰티 콜라겐

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용 자죽염

인산 김일훈 선생의 17년 계승자

명인 용용 죽염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홍환씨환

장수 넘버원 홍환씨 환, 관절 건강에 최고!!

당케어골드

식후 단 2알로 혈당 걱정 끝!!

천연 죽염 치약

건강탄산칼슘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죽염 치약

천연 발효 식초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문경 오미자청

토종 오미자를 친환경 농법으로 오미자만을 전통 발효로 진하게

유기농 국화차

향으로 맛으로 눈으로 즐기세요! 유기농으로 키운 명품 수제차

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유무를 못 드시는 분도 편안하게

유기농 CBD 통증 크림

근육, 신경, 관절 통증에 최고

합수면 CBD + CBN 젤리

더 이상 밤에 뒤척이지 마세요! 수면을 촉진시키는 CBN 함유 특효성 있는 천연 수면제

트럼프 멘토는 ‘악마 변호사’ 로이 콘 ... 1970년대부터 각별

지난 세기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잔혹하고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사람, 인간의 탈을 쓴 가장 악마에 가까운 인물을 꼽으려면 단연 1위가 로이 콘 변호사일 것이다. 그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불법 수사와 협박, 사기, 선동 등 다양한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멘토로서 많은 조언을 해준 인물이기도 하다. 워싱턴 정가에서 현재의 트럼프가 만들어지기까지 로이 콘의 영향은 막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1984년 10월 미식축구팀 뉴저지 제너럴스 구단주인 도널드 트럼프(왼쪽)와 로이 콘 변호사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의 관계는 1986년 로이 콘의 사망으로 끝났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로이 콘은 1927년 뉴욕에서 유대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맨해튼 소재 칼럼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2년 동안 뉴욕 남부 지방검사의 서기로 일했으며, 뉴욕주 변호사를 거쳐 연방 검사 됐다. 2차 세계대전 후 동서 냉전이 시작되면서 그는 반공주의에 심취했다. ‘미국 공산주의 반대 유대인 연맹’이라는 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 검사 시절에는 소련 스파이 사건에 유독 집착했다. 당시 냉전 분위기로 인해 그는 승승장구했는데, 1953년에는 미국의 핵무기 기술을 소련에 넘긴 스파이 혐의로 로젠버그 부부를 기소해 사형을 받도록 했다.

에이조에 걸려 1986년 59세 때 사망
로젠버그 부부 사건으로 명성을 떨친 로이 콘은 미 연방수사국(FBI) 수장인 에드 가 후버의 관심을 받게 돼 그와도 친분을 맺게 됐다. 로이 콘은 비밀수사를 하면서 사건을 조작하고, 심지어 고문과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조셉 매카시 상원의원은 이런 로이 콘을 워싱턴으로 불러들여 자신의 고문으로 영입했고, 이로 인해 미국판 빨갱이 마녀사냥인 소위 ‘매카시 광풍’이 발생해 수많은 사람들이 누명을 쓰고 희생 당했다. 매카시가 상원의원직을 잃자 로이 콘은 뉴욕 변호사로 복귀했다. 뉴욕 상류층의 변호와 법률 자문을 맡았다. 당시 고액으로는 부동산업자인 도널드 트럼프, 그리스 선박왕으로 알려진 아리스토텔 오나시스, 뉴욕 양키스 구단주인 조지 스타인브레너, 유명 예술가인 리처드 듀폰, 가톨릭 뉴욕 대교구 주교 등이 있었다. 로이 콘의 활동은 일반 변호사와는 달랐다. 그의 이름 뒤에는 위층, 절도, 업무 방해, 갈취, 탈세, 뇌물 수수, 사기, 협박, 증인 매수 등 불법에스러운 용어들이 따라 붙었다.

로이 콘은 말년에 변호사 자격을 박탈 당했다. 의뢰인의 유언장을 조작하는 파렴치한 행위 때문이다. 그는 주류 회사를 소유한 억만장자인 루이스 로젠스타인이 상속자로 자신을 지정하는데 불려들여 자신의 고문으로 영입했고, 이로 인해 미국판 빨갱이 마녀사냥인 소위 ‘매카시 광풍’이 발생해 수많은 사람들이 누명을 쓰고 희생 당했다. 매카시가 상원의원직을 잃자 로이 콘은 뉴욕 변호사로 복귀했다. 뉴욕 상류층의 변호와 법률 자문을 맡았다. 당시 고액으로는 부동산업자인 도널드 트럼프, 그리스 선박왕으로 알려진 아리스토텔 오나시스, 뉴욕 양키스 구단주인 조지 스타인브레너, 유명 예술가인 리처드 듀폰, 가톨릭 뉴욕 대교구 주교 등이 있었다. 로이 콘의 활동은 일반 변호사와는 달랐다. 그의 이름 뒤에는 위층, 절도, 업무 방해, 갈취, 탈세, 뇌물 수수, 사기, 협박, 증인 매수 등 불법에스러운 용어들이 따라 붙었다.

1972년 로이 콘은 자신의 휘하에 있던 정치 브로커 로저 스톤을 리처드 니슨의 선거 캠프에 소개한다. 로저 스톤은 나중에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행동대원으로 밝혀져 징역형을 받는다. 로저 스톤은 당시 총성의 표시로 등에 니슨의 얼굴을 문신으로 새기기도 했다. 이런 로저 스톤을 트럼프에게 소개한 이도 로이 콘이다. 로이 콘은 1970년대 트럼프의 건설사가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흑인들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을 맡은 후 트럼프와 로저 스톤을 연결해줬다. 로저 스톤은 초창기엔 트럼프를 위해 정부를 상대하는 업무를 맡았지만, 나중에는 정치 컨설턴트로 활약하면서 ‘트럼프의 남자’로 불렸다.

2016년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뉴욕에서 한창 부동산 사업을 확장하던 때인 1970~80년대 로이 콘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 어찌 보면 반세기 동안 악마 변호사로 악명을 떨친 로이 콘과 부동산 투기로 돈을 모은 트럼프의 의기투합은 당연한 일이었다. 트럼프는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사업을 물려받았다. 트럼프의 아버지는 독일계 이민자로,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에 광부들을 상대로 한 사탕과 매운으로 돈을 모았다. 뉴욕에서 부동산으로 업종을 바꿔 아파트 건설사업을 했다. 당연히 뉴욕시 정부와의 관계가 사업을 좌지우지했다. 정부와 은행을 상대로 로비하는 일이 트럼프 일가의 사업이었으며, 그렇게 트럼프는 사업을 배웠다. 트럼프의 아버지는 인종 차별주의자였다. 나치를 추종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한때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단에서 활동해 교도소에 드나들기도 했다. 트럼프가 극우 인종주의자들과 정서적으로 잘 교감하는 것도 그에게 그런 DNA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

두 번 이혼 트럼프, 로이 콘 덕에 재산 지켜
로이 콘과 트럼프와의 관계는 1970년 초반 시작됐다. 트럼프는 로이 콘의 의뢰인이었지만 그 이상의 친분을 맺었다. 트럼프를 닮은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소개한 사람이 바로 로이 콘이었다. 로이 콘은 자신보다 19살이나 적은 트럼프를 각별하게 챙겼다. 트럼프에 따르면 이런 친밀한 관계로 인해 변호사 수수료를 면제받기도 했다. 트럼프가 두 번의 이혼을 하면서도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로이 콘 덕분이다. 트럼프의 첫 부인 이바나 트럼프에게 ‘이혼할 경우 남편으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라는 혼전

각서에 서명하게 한 이가 바로 로이 콘이다. 트럼프의 사업은 호텔, 카지노, 연예계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뻗어나갔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자신의 재물을 맨해튼에 건설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유명 정치인과 교류하며 그 관계를 과시했다. 또 불법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아 유명세를 높였다. 일례로 1980년대엔 70개 이상의 은행들이 트럼프에게 40억 달러 상당의 대출을 했는데, 트럼프가 돈을 갚지 않고 회사를 파산시키는 바람에 은행들이 큰 손해를 보기도 했다.

지난달 제77회 칸 영화제가 열렸다. 공식 경쟁 부문에 영화 ‘더 어프렌티스(The Apprentices)’가 출품됐다. 1970년대 뉴욕의 비즈니스계를 설명하는 젊은 트럼프가 자신의 멘토인 로이 콘을 만나는 스토리가 펼쳐진다. 영화의 각본은 워싱턴과 백악관을 취재한 프리랜서 작가인 가브리엘 셔먼이 썼다. 영화에는 트럼프에 대한 신랄하고 거침없는 비판이 등장한다. 오는 11월 대선 앞두고, 특히 트럼프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이어서 큰 관심을 끈다. 영화는 트럼프와 로이 콘의 인연과 두 사람의 삶의 방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트럼프는 자기애가 강하고 여성 편력이 심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일부 장면들은 다가울 대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인인 이바나에게 공격적인 성격 욕구를 드러내 보이는 트럼프의 모습에서 여성 표심이 흔들릴 수도 있다.

2024년 미 대통령 선거가 5개월을 앞두고 있다. 차기 미국의 대통령은 바이든, 아니면 트럼프 둘 중의 한 명이다.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과 약한 이미지가 지지를 잃어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시인들의 항의가 바이든에게 향하고 있다. 불법과 사기 등 형사 기소된 트럼프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인들로부터 그의 과거(성매매 일막을 돈거래)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재판이 열리는 맨해튼의 법원 근처엔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전과자들이 모여 트럼프를 응원하고 있다. 트럼프가 스스로를 악마와 할수록 경쟁력이 강해지는 이유는 뭘까. 악마 변호사 로이 콘의 가르침 때문일까. **김동성 미주한인인권자연대 대표**

기업 고려한 1심과 달리 ... 2심은 ‘세기의 재산분할’ 선고

1심 ‘사적분쟁이 기업 좌우하면 위험’ 2심은 “노소영이 1조원대 재산분할” 최태원 재원 마련위해 자본 처분 댄 SK그룹 지배구조에 타격 줄 수 있어

2심 “노태우 비자금, SK에 유입” 불법 비자금 자녀에 상속 논란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조3808억원이란 재산분할이 인정된 데는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유입을 ‘유형적’ 기여로 인정한 게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이는 한국 현대사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산물을 자녀에 상속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에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1992년 12월 16일자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50억원 약속어음 6장’을 1991년경 최준현 선대회장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 증빙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는 최종 현이 원래 보유한 개인 자금과 혼화돼



경영 활동을 뒷받침하는 유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를 인정할 데는 김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메모, 해당 어음을 ‘채권’이라고 적힌 대방투 안에 들어 있던 ‘선경 300’이라고 적힌 소봉투에 보관해온 점, 당시 비자금을 맡긴 다른 기업의 차용증 200여원을 같은 방식의 소봉투에 넣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문제는 노 전 대통령 300억 비자금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둘째)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 셋째)의 결혼식 사진.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오른쪽)과 어머니 김옥숙 여사 모습도 보인다. (중앙포토)

하지만 재판부는 “1991년 당시 300억원 금전 지원이 행사상 어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고 이후 행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 2001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사후 입법 조치로 그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는 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자금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노 전 대통령의 ‘후광’에 의해 최종형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모험적 경영을 감행해 SK그룹을 성장시켰다고 본 점도 논란거리다. 1992년 태영증권 인수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이통통신사업

‘9위 부자’ 권혁빈 이혼소송도 주목

법원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 권씨 배우자, 지분 절반 요구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했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과거 재판이 이혼소송과 결이 다르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하면서 이 사장의 재산 약 2조5000억원 중 절반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020년 재판부는 재산분할액으로 141억원만 인정했다. 이 사장의 배우 주식 대부분은 이혼금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이씨는 주식 지분 현물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분 분할은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판사는 기업 지분을 재산분할 범위에 안 넣는 쪽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불처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다. 판사마다 판단이 다르고, 학계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아직 없다.

현재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즈니스책임자(CVO)는 배우자 이모씨와 이혼 소송 중이다. 미국 포브스에 따르면 권 CVO는 국내 9위 부자로 재산은 39억 달러(약 4조4850억원)다. 이씨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지분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안나(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판부는 재산분할액으로 141억원만 인정했다. 이 사장의 배우 주식 대부분은 이혼금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이씨는 주식 지분 현물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분 분할은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판사는 기업 지분을 재산분할 범위에 안 넣는 쪽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불처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다. 판사마다 판단이 다르고, 학계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아직 없다.

“판결문 비공개해 달라” 최태원 측 요청 거부한 재판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지난달 30일 2심 재판부의 1조3808억원 재산분할 선고 직전 “판결문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관이 기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9·연수원 19기·사진)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가 최 회장 측의 똑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판결문을 비공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법원 안팎에선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는 김 재판장의 성격이 드러난 장면”이란 평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혼 소송 대상 최대 재산분할 선고는 김 재판장이 자리에 앉자마자 예고했다. 판결 요지 낭독에 앞서 “판결문이 길어 (선고에 앞서) 판결 이유부터 먼저 설명할 건데, 항소심 결원의 큰 틀은 ‘(1심) 위자료 1억원은 지나치게 낮다’와 ‘재산분할 대상은 1심에서 좁게 잡아 확정대상은 작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이 간박하게 ‘선고 이후 판결문을 원천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도 이즈

“판결문 열람”을 두고 양측의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던 사이 김 재판장은 50여 분간 요지 낭독을 마친 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도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곤 법정에서 퇴장하자마자 지체 없이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했다. 최 회장 측의 ‘판결문 원천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법원 내에선 약 200여 분량인 2심 판결문도 화

제가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2심 판결문은 ‘현대사 다시 읽기’ 수준으로 6공화국 시절을 두루 살핀 판결문”이라며 “김 재판장이 최 회장 측 요청에도 불구하고 작성한 듯 판결을 법원 내부에 공개한 것”이라고 총평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선고 직후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이는 비공개 가사 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김 재판부는 앞선 판결에서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큰 유착 배우자에게 폭넓게 책임을 물어 주목을 모았다. > 지난해 1월엔 상간자에 사용한 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고 > 지난해 6월엔 유착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 더 큰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했

“김 재판장이 최 회장 측 요청에도 불구하고 작성한 듯 판결을 법원 내부에 공개한 것”이라고 총평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선고 직후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이는 비공개 가사 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김 재판부는 앞선 판결에서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큰 유착 배우자에게 폭넓게 책임을 물어 주목을 모았다. > 지난해 1월엔 상간자에 사용한 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고 > 지난해 6월엔 유착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 더 큰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했

“김 재판장이 최 회장 측 요청에도 불구하고 작성한 듯 판결을 법원 내부에 공개한 것”이라고 총평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선고 직후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이는 비공개 가사 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김 재판부는 앞선 판결에서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큰 유착 배우자에게 폭넓게 책임을 물어 주목을 모았다. > 지난해 1월엔 상간자에 사용한 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고 > 지난해 6월엔 유착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 더 큰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했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료의 10%를 돌려 드립니다

보험료 10% Return 프로모션

- Audit 완료 9개월 후에 보험료의 10% 지급
- Audit 및 할인된 보험료 기준: \$1,000 이상만 해당

10% Flat Dividend

* The 10% Flat Dividend is offered by AmTrust Financial.

전문문의는 휴대폰으로 왼쪽 QR코드를 스캔해서 보내주시면 신속한 전적이 가능합니다.

703.639.0882

VA Office 7535 Little River Turnpike,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1404 N Rolling Road, Catonsville, MD 21228 (구. 소망치과 위치)

SMART.SOLOMONUS.COM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철 통증
- 신진/산후 통증
- 관할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목안정, 후안정)

진료 내용

레드트드 치료, 사전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근골격계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통증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보스치료, 근육 통증치료,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영장 김우기 DPT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muscular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러리 지역]

막착같은 부동산 바키리

5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십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바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십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바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십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바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센터빌 타운홈

방3+와2+차고2
2004년형,
넓고 환한 엔드유닛

\$650,000

센터빌 타운홈

방3+와2+차고2
하비트 부근

\$560,000

센터빌 타운홈

방3+와3.5
2,184sqft,
2000년

\$730,000

센터빌 콘도

방3+와2+차고1
1,270sqft, 2002년
콘도비 \$463

\$430,000

막착같은 부동산 바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앤절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확정 댐 가동원전 26기→34기...부지 확보, 주민 설득 과제

(현재) (2038년)

소형모듈원전 첫 도입, 안전성 높아 원전 35.6% 신재생 32.9%까지 늘어

문재인 정부는 원전의 안전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원전을 배제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전력 수요를 커버하려 했다. 그러나 4계절이 뚜렷해 기후 변화가 심한 국내에선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재생에너지)만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건 불가능하고, 발전 비용이 원전보다 3~5배가량 비싸다는 등의 단점이 컸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뒤집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두루 확대하는 '친(親)원전' 기조를 2022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부터 반영하기 시작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가 31일 내놓은 11차 전기본 초안은 이 같은 윤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담고 있다.

전기본 총괄위는 2038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발전설비 10.6GW 중 4.4GW를 신규 원전을 지어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1기당 1.4GW인 한국형 원자로 'APR 1400'을 건설한다고 가정했을 때 3기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추가하면 추가로 필요한 발전설비를 확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초안이 최종안까지 이어진다면 2038년까지 국내 가동 원전은 SMR

포함 총 34기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가동 원전은 26기다. 새울 3·4호기(옛 신고리 5·6호기)와 신한울 3·4호기는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신규 원전 확보의 관건은 부지 확보와 주민 설득이다. 대형 원전의 경우 부지 확보 등에 시간이 걸려 최종 준공까지 평균 13년 11개월(16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바로 준비해야 2038년께 신규 원전을 가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초안은 그러나 직전 전기본과 비교하면 원전의 힘을 조금 빼 신재생에너지로 넘겨줬다. 2030년 원전 비중을 32.4%에서 31.8%로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유지하게 하자는 제안이다. 지난해 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재생에너지를 3배 확대하자"고 합의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그 이후인 2030년부터 2038년까지 원전 비중은 31.8%에서 35.6%로 높아지고, 신재생에너지는 21.6%에서 32.9%로 올라가는 게 전기본 초안에 포함됐다. 이런 안이 실현되면 한국은 무탄소 에너지 70%의 시대를 열게 된다. 지난해 수치는 39%에 그쳤다. 원전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전원으로 분류된다.

이날 전기본 초안에는 2035년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간 경쟁 입찰시장을 도입하는 안도 있었다.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최적의 발전원을 선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는 31일 공개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2038년까지 대형 원전 3기를 추가 건설하는 안을 담았다.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택하도록 하고 발전원 간 기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전기본 총괄위를 이끈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전기본 실현을 위해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력망 구축 속도를 높이는 국가기간전력

망확충 특별법이 지난해 10월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점을 아슬아슬한 것이다.

SMR 도입안을 넣은 데 대한 호평도 있다. 노동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국내에 SMR이 도입되면 국내 기업의 SMR 연구가

발(R&D)과 수출 등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두산에너지빌리티 등이 SMR을 개발하면서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경희대 교수)는 "민생을 포기한 초안 같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려면 비싼 신재생에너지보다 값싼 원전 비중을 더욱 늘려야 했다는 비판이다.

현재 전력 소매상인 한국전력공사는 장기간 '두붓값이 콩값보다 싼' 역마진 구조로 전기를 공급하다 누적적자가 약 43조원에 달하는 등의 재무 위기에 빠져 있어 올해 하반기 이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 회장은 "신규 원전을 대형 3기가 아니라 대형 10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연재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도 신재생에너지의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새 원전을 3기 늘리는 안의 경우 부지를 어디로 하고 주민을 어떻게 설득할지를 포함한 방법론이 빠져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근본적으로 국가가 나서 전력 수급 계획을 짜는 건 세계에서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며 "이제는 전기본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에 맡기는 게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세종=김민중 기자

작년 더위병 걸린 군인 1199명, 98일간 투병 병사도

질병관리청이 최근 강원도 인제군 모부대에서 군기훈련(열차러)을 받다 숨진 훈련병을 열사병 추정 사망자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훈련병이 숨진 강릉야산병원 의료진의 신고를 근거로 했다. 이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질병청 통계에 잡혔다. 이처럼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군부대 내 온열질환 환자가 한 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의무사령부 예방의학과 소속 군의관과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지난 4월 국제학회지 '군 의학'에 '한국군의 온열질환 현황 분석 및 평가' 논문을 발표했다. 군 온열질환과 관련한 첫 연구다. 연구팀은 국방의료 통계 정보 시스템과 국군의무사령부 열 상해 감시 시스템 자료를 활용했고 국군의무사령부 기관관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았다.

강찬수 환경신체미학연구소장이 지난 달 29일 환경뉴스 사이트인 '강찬수의 에코파일'에 소개한 논문에 따르면 지

난해 열 상해 환자는 1199명으로 조사됐다. 열 탈진이 831명(69.3%)으로 가장 많았다. 땀을 많이 흘려 수분·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아 극심한 무력감과 근육 경련을 보이는 증세다. 이어 열 피로 118명, 열사병·일사병 97명, 열 실신 79명, 열 발작 62명 등이었다.

특히 열사병은 질병청이 가장 위험한 온열질환으로 분류하는 증세다. 뇌 중추신경의 체온 조절 기능이 망가져 체온이 40도 넘게 올라간다. 다발성 장기 손상과 기능 장애를 초래하고 치사율도 30~40%에 달한다.

연구팀은 군 의무부대와 군병원에서 온열질환 치료를 받은 환자를 집계했다. 2018년 1249명, 2019년 1250명, 2020년 846명, 2021년 1028명, 2022년 1109명 등이다. 질병청의 온열질환 환자 집계(지난해 2818명)에는 포함되지 않는 수치다. 연구팀은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를 중증으로 분류했다. 2022년의 경우 20명 가량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연구팀은 98일 입원 치료를 받은 25세 병사의 심각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병사는 지난해 8월 25일 행군 도중 열 실신 의심 증세로 입원했다. 뇌 컴퓨터 단층촬영(CT)과 심전도 검사를 받고 퇴원했다 5일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간질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악화돼 기계적 인공호흡 치료 등을 받았다. 저산소성 뇌 손상, 급성 췌장염, 패혈성 쇼크 등이 이어졌고 기관 절개술과 혈액 투석 치료를 받았다.

지난해 온열질환은 육군에서 86.5% 발생했다. 전체 군인 중 장교는 37명(3.1%), 부사관은 149명(12.4%), 병사는 875명(71.9%)이었다. 병사 중에는 일병 320명(26.7%), 이병 219명(18.3%), 상병 204명(17%), 병장 74명(6.2%)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훈련병도 58명(4.8%)이나 됐다. 열 손상 사례는 5월에 시작해 7월에 최고조에 이르고 9월까지 이어졌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나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31일 국립대전현충원 장병묘역을 찾은 어린이들이 묵념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국립대전현충원은 참배객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한국은 좁다! 세계로 가자!

월드 스타를 꿈꾸며 일편단심 트로트를 사랑해 온 가수 3스타!

5월 월드스타 순위



★ 1위 진해성

6월 4일 생일을 축하합니다!



★ 2위 이찬원



★ 3위 박서진

★ 진해성 가수 소개

진해성, 월드 스타를 꿈꾸는 진해성 가수가 유일무이한 이유는?

1. 독보적인 음악적 재능 2. 다양한 음악장르의 소화 능력 3. 무대에서 보여주는 강력한 프레젠테이션과 라이브 퍼포먼스 4. 글로벌 팬들과 SNS를 통해 소통 5. 문화적 가교 역할 6. 지속적인 창작과 혁신을 통해 가수진해성은 최강의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13일 트로트스타 투표 웹서비스 '트로트픽'(tropick)에 따르면 진해성은 5월 2주차 위클리 투표 슈퍼노바 부문에서 64만 4540 포인트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 진해성가수는 미스터트롯(2)에서 '미'로 입성한 후, TV조선 후속 예능프로그램인 '트랄랄라 브라더스'에 출연했으며, 현재는 '미스터로또' '산따라 물따라 탄따라'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가장력있는 실력과 예능감을 보여주며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있는 중이다. 진해성 가수는 미스터트롯(2) 진선미 콘서트 전국 투어와 크루즈 콘서트를 통해서도 팬들을 만나고 있다.

팬분들의 사연

(황용운님 (미국 시카고팬) 아버님이 외국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신지 10년이 지났지만, 아버님이 살아 생전에 항상 들으시던 탄따라 '트로트' 음악을 저도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고향의 그리움과 한국의 정서를 잊지 못하다가 트로트의 최강자 진해성 가수님의 중저음 목소리를 들을때마다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진해성 가수의 음악을 듣고 그 노래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트로트 음악에 빠질거라고 꿈에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진해성 가수님의 노래를 들을때마다 꿈에 그리던 고향과 어릴적 추억속으로 빨려 들어가 상상의 나라를 피게 됩니다.

홍수연님 진해성 가수의 인친 콘서트공연이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가수님이 "일편단심 민들레야" 노래를 부를때 저는 숨죽여 들으면서 감상했습니다. 가수님의 충실력도 많이 발전했고 노래는 역시 진해성입니다. 진해성 노래를 라이브로 듣지 않고는 진해성 노래를 평가할 자격이 없다고 제가 감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하하 진해성 가수님이 월드스타가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월드팬채널에서 힘써주시고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응원구호 함께 합니다. '대체불가 진해성! 너만보여 진해성! 사랑해요. 진해성! 진해성 진해성 화이팅!'

★ 이찬원 가수 소개

이찬원, 지상파 음방 2관왕→자체 최고 초등 판매량...트로트계 유일무이 기록 남겼다. 가수 이찬원이 두 번째 미니앨범 'bright:燦(브라이트:찬)'으로 커리어 하이로 달성했다. 이찬원은 지난달 발매한 두 번째 미니앨범의 타이틀곡 '하늘 여행'으로 5월 첫째주 KBS '뮤직뱅크'와 MBC '쇼! 음악중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성과는 이찬원의 자작곡들로 채워진 앨범이기에 더 의미가 깊다. 해당 앨범은 초등 판매량 부문에서도 자체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이찬원은 'bright:燦' 초등 판매량(앨범 발매 후 일주일 동안의 판매량)은 60만 장을 돌파했다. '뮤직뱅크'에서는 트로트 가수로는 2007년 강진의 '뽕벌' 이후 17년 만에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날 '쇼! 음악중심'에서 1위를 차지하며 지상파 음방 2관왕을 달성했다. 이찬원은 한 주 만에 KBS, MBC 지상파 음방 2관왕을 달성함으로써 트로트계 새기록을 세웠다.

팬분들의 사연

(찬블루님) 미스터 트롯(1)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미로 출발! 어느덧 5년차 가수로 방송, 광고, 행사, 콘서트, 앨범 발매 어느것 하나 소홀함 없이 중형무진 승승장구중인 이찬원 가수! '불후의명곡' '특파원25시' '하이앤드 소금쟁이' 한 곳차이! 방송 MC로 활약하며 쉽 없이 달려가는 이찬원 가수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길 기도합니다.

★ 박서진 가수 소개

<장구의 신>이라는 칭호답게 신들린 듯 장구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에 호기심과 관심을 가졌다가, 예상치 못한 테크니컬한 가창력과 심장에 스미는 미성의 음색에 홀려 유튜브를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 결국 넘쳐나는 유튜브 속 박서진의 노래들과 과거영상을 접하며 "박서진 팬"이 된 사람들이 아주 많다. 미스터트롯2 출연 이후에 TV CHOSUN 후속 예능프로인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출연했으며, 현재는 미스터 로또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 2024년 1월 24일부터 KBS 예능프로인 살림하는 남자들2에 박서진가수가 출연하면서 시청률이 대폭 상승하여, 토요일 황금시간대로 방송시간이 바뀌기도 했다. 박서진가수는 '살림남2'에서 가족들과의 일상생활과 여동생 효정양과의 케미로 시청자들에게 큰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팬들의 사연

(천리향님) 노래로 감동과 행복을 주는 트롯 황태자 박서진 가수님은 트로트 가수생활 10년만에 박서진가수 맞춤형 '지나야'란 곡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2024년 5월 9일에는 유명작곡가 '정의성'님한테서 '공주에서'란 신곡을 받으며 음원 발표하시려 노래가 대박나길 기원합니다. 효자가수, 장구의 신, 예능의 신, 만능엔터테이먼트로 승승장구하세요! 국내를 넘어 월드스타 되시기를 덧붙이 항상 같이 응원합니다!

후원: 유튜브 월드팬 공식채널 / 월드 탐스타 / 워싱턴 국제 문화교육 재단

서방의 호구 벗어난 중국 클래식 한·중·일 교류 물꼬 넓힐까

중국의 클래식 역사는 길지 않다. 1976년 마오쩌둥 사망으로 문화혁명이 끝나면서 서양 클래식이 부분적으로도 입국했고,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상하이 출신 관료가 수도 바깥에 클래식 인프라를 확충했다. 클래식 문화가 오래되지 않은 만큼 클래식 상품의 생산과 수입, 소비에서 오랜 과도를 거쳤다.

지금도 서구 클래식 시장은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 중국 반환 전의 홍콩, 마카오를 세세히 구분하지 않고 '중국'(China)으로 인식한다. 중국의 G2 부상 이후, 서구 클래식 시장이 바라보는 중화는 경제적 의미에서 '하나의 중국'이 됐다. 2010년대 중반만 해도 한국의 시장 위상은 유럽 악단이 중국 투어를 전후해 잠시 서울에 들르는 정도였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외국의 소득이 라면, 유럽 악단의 동북아 투어에서 서울이 중국에 부속된 이미지를 벗은 것이다.

이렇듯 201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 오케스트라에 중국은 옐도라도였다. 리먼 사태, 유로존 위기로 유럽 각국의 중앙-지방정부가 악단에 교부하는 재정 이 마를 때면 오케스트라는 아시아 투어, 엄밀하게 중국으로 10일에서 2주에 이르는 연주 여행을 떠나면서 운영 자금을 융통했다. 마침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이후 '팍스 시니카' '일대일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미국을 뛰어넘는 중국의 구매력에 상응하는 고급 예술 소비를 유럽 오케스트라 공연이 채운다는 명분이 있었다.

미국 뛰어넘는 고급 예술 구매력 과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통해 베이징 국가대극원과 상하이 동방예술중심이 생겼고, 시진핑 집권 이후 텐진, 난징, 칭다오, 장수, 우한, 광저우에 대형 클래식홀이 들어섰다. 오케스트라 입장에서 번거롭게 한국, 대만으로 건너가지 않아도 중국 본토에서만 7~10개 공연을 하고 넉넉한 출연료를 받았다. 2010년대 중반 런던 필하모닉이 새해 첫날 중국 공연을 한 건 영·중 선린 외교가 아니라 돈 때문이었다. 성탄 직후 연말에 해외 투어를 추진하면 서방 악단 노조는 반대했지만 중국은 그걸 보상해줄 돈이 있었다.

같은 시기, 중국 자금을 유럽 현지에서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영국 오케스트라에 유행했다. 런던 심포니 대표 캐서린 맥도웰은 러시아 올리가르히(oligarch·신흥 재벌 집안)를 등에 업은 전임 음악감독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악단을 떠나자 중국 부동산 그룹 레인우드(Reignwood)를 스폰서로 유치



1 지난 4월 베이징 국가대극원에서 지안왕, 다케자와 교코와 실내악 3중주를 한 정명훈. 2 방미 중 뉴욕 줄리어드 음악원 방문한 평리위안. 3 1973년 유진 오먼디가 이끄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방중 공연 리허설. [사진 상하이캐탈릭콘서트, 줄리어드음악원, 중국국립교향악단]

했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총액 10억원대 후원 약정을 중국 주류업체 우량애와 맺었다. 런던 예술시장에 눈독을 들인 중국은행(Bank of China), 중국공상은행(ICBC)을 잡기 위해 런던 매니지먼트가 판시(關係)를 고려해 중국 고관대작 자녀를 인턴으로 뽑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부터 2023년 리오프닝까지 3년 동안 중국 경제는 크게 흔들렸고, 중국 자본에 의존해 포트폴리오를 짠 서구 오케스트라도 체질을 바꾼다. 유럽 악단은 중국과 일본 대신, 회당 개런티가 낮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로 아시아 투어를 돌리고 공연 회수를 늘렸다. 뮌헨 필하모닉은 지난해 정명훈 지휘로 한국만 방문해 7회 공연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정부 재정을 쓰는 한국의 지역 공연장이 중국을 뒤흔 해외 악단의 버팀목이 됐다.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처럼 서구 클래식 단체 수입에 돈을 쓰지 않으리란 징후가 곳곳에 보인다. 모객에 애를 먹는 1선급 이하 도시의 중국 공연장에서는 이제 서구 오케스트라 공연을 질적 성장의 결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웃 도시가 성장하는데 우리도 처지지 않겠다는 지역 정책 결정자들의 속 좁은 경쟁이 2000년대 후반 직할시, 부성급, 지급, 현급 도시에 클래식 공연

2010년대 유럽 악단 재정 마르면 1~2주 중국 투어로 운영자금 융통
팬데믹 계기 서구 클래식 급퇴조 중국 자체 프로 악단 폭발적 성장
작년 정명훈 중심 한·중 교류 재개 동북아 3국 공동 오페라 탄생 기대



유용

장의 난립을 초래했다. 대형 공연장은 늘었지만 유료 관객이 비례해 늘지 않으니 유럽 악단 공연은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당 지침을 따르는 공연장이 무늬만 사기업인 에이전시를 통해 해외 오케스트라 상품을 구입해 인민에 제공하는 구조다. 올림픽, 엑스포, 아시안 게임 같은 이벤트가 있으면 모를까 평시에도 유럽과 미주 오케스트라가 필요한 건 아니다.

2010년대 후반 트럼프 정부 시절 미·중 갈등이 바이든 정부로 장기화되면

서 정기적 중국 투어로 돈을 벌던 미국 오케스트라도 중국에서 자취를 감췄다. 2023년 11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유진 오먼디와 함께한 1973년 방중 공연 50년을 기념해 단원 십여 명을 베이징에 보냈지만 외교 의전 이벤트에 그쳤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는 예전처럼 음악외교로 미국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나, 중국 반응이 달라졌다. 필라델피아 악단 방중을 후원한 포드 재단에 대한 중국 정부의 냉랭한 태도 역시 낯선 풍경이다.

요즘 중국에선 해외 악단 수입 대신 자국 오케스트라를 육성하는 자강론이 퍼진다. 중국 심포니 발전 재단(China Symphony Development Foundation) 통계에 따르면 중국 프로 악단은 2015년 30개에서 이제는 80개가 넘을 만큼 폭발적 성장세를 보인다. 이는 성악을 전공한 시진핑 주석 부인 평리위안 여사의 후광 덕분이다. 평리위안 여사는 텐진에 문을 연 미국 줄리어드 음악원을 방문하고 방미 일정에 현지 음악학교를 찾으면서 중국 클래식 인재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쏟는다. 중국 공연장이 신생 악단과 지역 시민의 입맛을 고려한 맞춤형 클래식 상품 개발에 힘쓰고 성악 부문에 집중하는 움직임도 평리위안 여사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

베이징서 실내악 한·중·일 3중주 공연

코로나 쇠국 이후, 전통 회귀를 추구하는 시진핑 정부의 문화 예술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피아니스트 랑랑, 유자왕, 장하오원 등 저명 레이블 계약이나 경연 우승자의 해외 악단 중국 공연보다, 지휘자 유용이 영향력을 미치는 중국 악단의 해외 진출에 힘이 실린다. 유용은 상하이 심포니와 차이나 필하모닉 음악감독, 홍콩 필하모닉 수석 객원 지휘자, 광저우 심포니 명예감독, 베이징

음악 축제 의장을 동시에 맡는 '중국의 게르기에프'이자 '중국 클래식의 아이 콘'이다. 유용과 함께 하는 중국 악단의 유럽 원정이 중국 클래식의 굴기로 여겨졌다. 유용이 움직이면 중국 기업이 후원하고 매니지먼트 아스코나홀트가 계약하고 음반사 도이치그라모폰이 앨범을 낸다. 우리에게 정명훈-서울시향 투어로 기억되는 2014년 BBC 프롬스가 유용-차이나 필하모닉의 유럽 데뷔였다. 이제 중국은 해외 악단의 중국 방문 사업 대신, 유용 지휘 악단의 해외 진출에 집중한다.

한국과 중국의 상업 목적 클래식 교류는 중국이 성주 사드(THAAD·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2017년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내린 이후 줄곧 막혔다.

지난해부터 변화가 보인다. 계기는 중국 정부의 경제활동재개(re-opening)였다.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풀자 서방 오케스트라가 다시 대륙에 들어왔고, 정명훈이 한·중 클래식 교류 재개의 물꼬를 텄다. 정명훈은 지난해 11월 중국국가대극원(NCPA) 오케스트라 지휘로 베이징 국가대극원을 방문했고, 올해 4월 같은 곳에 피아니스트로 등장해 중국 첼리스트 지안왕, 일본 바이올리니스트 다케자와 교코와 실내악 3중주를 함께 했다. 5월말 서울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기 한 달 전, 중국은 정명훈을 베이징으로 들였다. 베이징과 상하이 클래식 고정 관객층에 정명훈 국적에 대한 거부감은 미미하다. 정명훈을 중심으로 두고 중국과 일본이 한국과 협력한다면, 그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직후 밝힌 2025~26년 한·중·일 문화 교류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중·일 협력을 클래식에서 일귀널 가장 큰 그릇은 서울 예술의전당, 베이징 국가대극원, 도쿄 신국립극장을 키스태이션으로 한 대형 오페라 공동제작이다. 한국은 정명훈 외에 오페라 작곡가 진은숙이 있고, 일본은 도쿄 메트로폴리탄 심포니 음악감독 오노 가즈시가 있다. 중국에는 유용 외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주역 소프라노 임황이 서울과 도쿄를 찾는 그림이 자연스럽다. 보안법 통과와 함께 중국에 완전 편입된 홍콩 필하모닉을 2017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에 확인했듯, 중국 국가대극원 오페라 극장과 NCPA 오케스트라 역량을 확인한다면 중국 클래식에 대한 국내 관객의 막연한 불신은 그래도 줄지 않을까. 서구 시장은 중국을 돈으로 바라보지만 우리는 클래식에서도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다.

한정호 공연평론가·에듀탈클래식 대표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은퇴플랜 / 롱텀케어

은퇴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 평생 연금수입과 롱텀케어 보험

60세
\$194,055
Day1

85세
\$406,309
25년후

3% 복리인상

- 월 보험료 - \$316
- 불입기간 - Only 15년
- 사망보상금 보장

“나에게 꼭 맞는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은퇴를 하는 방법입니다.”

앤디킴의 재정USA
유튜브 채널
SCAN ME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앤디킴
VA Lic# 639047

Ex: 현 60세 남성 - Cash Indemnity 방식 (매월 은행 계좌로 정기간호 비용이 입금)

WIDE SHOT



꽃밭에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날아든 큰주홍부전나비 암컷 한 마리가 금계국 꽃 위에 앉아 꿀 빨기 삼매경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큰주홍부전나비는 1886년 영국인 곤충학자 리치(J.H. Leech)가 강원도 원산 부근에서 처음 발견했다. 리치는 당시 한국 고유종으로 기재했지만, 나중에 영국이 원산지인 종의 아종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큰주홍부전나비는 원산지 영국에서 이미 1850년대에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 유럽 대륙에서도 거의 절멸 상태에 이르러 1996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위기 적색목록 준위협종(NT)으로 분류한 보호종이다. 사진·글=박종근 기자

먼나라 이웃나라 역사 프리즘

호주와 뉴질랜드의 현충일

글·그림 이원복

2차 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은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런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1차 대전 중 연합군의 최대 패전이었던 갈리폴리 전투였다.

이 직전은 이듬해 1월 9일 연합군의 원천한 패배로 막을 내렸는데

최신병으로 나서게 된 연약 부대는 무려 8,587명이 전사하고 1만 9,367명이 부상당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총인구가 500만, 100만에 지나지 않은 두 나라에는 너무도 큰 충격이었다.

속도전을 펼친 독일군이 서부 전선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고

영국, 프랑스와 연합한 러시아군이 패전에 패전을 거듭하자

당시 40세의 해군 장관 처칠은

영국을 조국으로 알고 아들들을 전선에 보낸 어머니들은 오열했고

갈리폴리의 비극으로 모든 국민이 깨닫게 되었다.

왜?!?!?!

육해상을 통해 러시아와 연결하는 이른바 갈리폴리작전을 구상했다.

군함을 이끌고 다르다넬스해를 통과해 흑해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무스타파 케말* 오스만제국 장군에 의해 반반이 실패하자

우리는 호주인이며 뉴질랜드인이다.

매년 4월 25일은 갈리폴리 전투에서 비호소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현충일로

1차 대전 최대의 패전을 기억하고

처칠은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그 후 연합군은 갈리폴리 반도 상륙을 시도했다.

1915년 4월 25일 연약* 부대(호주 뉴질랜드 군단)가 진공하니

병방에서 100만 명이 투입되어 50만 명이 죽고 다친 1차 대전 최대의 전투가 시작됐다.

연약 데이러 하여 두 나라의 가장 경건하고 숙연한 추모 기념일이다.

이 전투와 1차 대전으로 두 나라는 비호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진정하게 '독립국가'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회새기는 날이기도 하다.

*ANZAC: Australian and New Zealand Army Corps **지금의 연약반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질로우 프러미어 에이전트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리스버그 싱글홈	레스틴 콘도	로턴 타운홈	클리프턴 싱글홈
\$1,110,000	\$426,000	\$580,000	\$840,000
방5, 화5, 차고2 5289 Sf 잘 관리한 집	방2, 화2, 1076 Sf 굿 로케이션 넉넉한 주차공간	방3, 화3.5, 차고1, End Unit Walk Out, 1층 전체 마루 굿 로케이션	방4, 화2.5, 차고2 새지붕 등 업그레이드 많이함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100여명의 치료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www.naturadent.net

구강교육치과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 Veneer Lumineers - Root Canal Treatment

natura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우리말 바꾸기

우리도 조사예요

조사는 체인·부사·어미 등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다. 조사의 띄어쓰기는 간단명료하다. 맞춤법 41항의 ‘앞말에 붙여 쓴다’는 규정만 알고 있으면 된다. 문제는 대부분 그 단어의 정체를 몰라 발생한다. 대표적인 게 ‘커피’이다. 의존명사로 알고 필 때가 많지만 보조사다.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도리어’의 뜻을 나타낸다. ‘ㄴ커피/은커피/는커피’도 앞말과 붙여야 한다. 앞말을 지정해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보조사다. 보조사 ‘ㄴ/은/는’에 ‘커피’이 결합한 형태다. ‘빨린커피’ ‘보상은커피’ ‘위로는커피’와 같이 붙이는 게 바르다. ‘꽤나’도 마찬가지다. 어느 정도 이상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심술궂거나 부리궂네’와 같이 앞말에 붙여야 한다. ‘산이 꽤나 높다’처럼 부사 ‘꽤’ 뒤에 보조사 ‘나’가 붙은 ‘꽤나’와는 다르다. ‘야말로’의 정체를 뭘까? 강조하여 확인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다.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는 ‘이야말로’로 쓰인다. “너야말로” “지금이야말로”와 같이 필 때가 많지만 “너야말로” “지금이야말로”로 전부 붙여야 한다. 조사는 자립성이 있는 말뿐 아니라 조사가 연속되거나 어미 뒤에서도 항상 앞말에 붙인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낯,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양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양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제 계약 제휴사
한국중양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뉴스 포커스

‘강남 스타일’에서 김밥까지



김동필
논설실장

사이가 부른 ‘강남 스타일’의 위력은 대단했다. 미국 전체가 난리였다. 인기 절정일 때는 하루에 한 두 번은 노래를 들을 수 있었던 같다. 미국 라디오 음악방송에서 한국 노래를 듣는 신기한 경험도 했다. ‘강남 스타일 열풍’ 소식을 전하던 뉴스 앵커가 노래를 흥얼거릴 정도였다. 미국에서 ‘K팝’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강남 스타일’ 상륙 이후가 아닐까 싶다. 그렇게 10여년의 세월이 지나 이제 ‘K’라는 이니셜은 ‘한국 것’의 상징이 됐다. K팝을 넘어 다양한 종류로 분화가 이뤄지고 있다. 요즘엔 K푸드, K뷰티, K드라마, K무비, K패션 등 수많은 분야가 K라는 이니셜로 소개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한국 것’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덕이다. 이미지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다. 흔한 골목길 분식 메뉴인 김밥도 화제가 될 정도다. 이젠 어딜 가도 어렵지 않게 ‘한국 제품’을 찾을 수 있다. 문화 콘텐츠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소재들이 영문으로 소개되고 한류 스타 관련 뉴스는 거의 실시간 전달된다. ‘한국 것’을 즐기는 층도 다양해진다. 젊은 층 중 심에서 이제는 그들의 부모 세대까지 확산하고 있다. 필자의 최근 경험도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는 듯하다. LA한인타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에서 발레파킹했던 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

다. 1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다가오더니 ‘한국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했더니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자기 엄마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여성을 가리켰다. 얼떨결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더니 “안녕하세요”라는 한국어 답이 돌아왔다. 10대 여학생이 한국어를 배운다고 했으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중년 여성이 한국어를 배운다니 호기심이 생겼다. “왜 배우느냐”고 물었더니 K드라마 팬이란다.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녀 차가 먼저 오는 바람에 짧은 인터뷰를 마쳐야 했다. ‘K의 인기’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경제적 발전과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 확대는 자긍심으로 이어진다. 이제 한국에서 ‘문화 사대주의’ 운운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자긍심이 지나쳐 소위 ‘국뽕’의 단계까지 가는 경우를 종종 본다. ‘한국 것’이 최고라는 생각에 별것 아닌 일에도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게 그런 예다. 맹목적 믿음은

이성을 마비시킨다.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 시장은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다. 워낙 다양하고 우수한 선수들이 뛰는 곳이다 보니 순식간에 판도가 바뀌곤 한다. 반면에 고객의 충성도 역시 높다. 한 번 마음에 들면 웬만해선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K푸드’의 현주소를 확인해 보자. K푸드의 인기가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은 다른 유명 아시아 음식에 뒤진다. 중국,일본,베트남,태국 등 아시아계 음식의 선두 주자들이 먼저 미국 시장 개척에 나섰다. 단순히 식당 숫자로만 봐도 한식당은 아직 열세다. 경제정보 전문 업체인 렌텍 디지털의 자료에 따르면 미 전국에 중국 식당은 3만5000여개나 된다. 이어 1만8000여개인 일식당이 두 번째로 많다. 이어 1만500여개인 태국 식당, 6500여개의 베트남 식당이 뒤를 잇고 있다. 반면 한식당은 5200여개로 집계됐다. ‘K의 인기’가 지속하려면 생명력이 필요하다. 분화만 해서 생존 기간이 짧아질 우려가 있다. 누군가 내게 “K”를 관통하는 의미가 무엇이나?”고 물으면 대답이 궁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우둔한 탓인지 몰라도 ‘한국 것’을 의미한다’는 답 정도가 고작일 듯하다. 분명 현상은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답답함이라니.

열린광장

65년 잊힌 묘지를 찾아



김수영
수필가

고스코필드 박사는 영국에서 캐나다로 이민 토론토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한 번은 병으로 많은 소가 죽어가는 일이 벌어졌다. 원인을 모르니 속수무책으로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스코필드 박사가 원인을 찾아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수의학자가 되었다. 스코필드 박사는 그 공로로 독일과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수의학자일 뿐 아니라 세균학자이며 병리학자였다. 스코필드 박사는 캐나다에서 평생을 대우받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대학 선배로 한국의 세브란스 대학 교수로 있던 에비슨 박사의 초청에 응해 세브란스 대학의 세균학 교수로 부임했다. 스코필드 박사는 1916년 갖 결혼한 아내 엘리 스코필드 여사와 함께 한국에 도착했다. 스코필드 여사는 음악과 예술에 조예가 깊었고 피아노 연주 실력도 뛰어났다. 스코필드 박사 부부는 한국에서 31 독립운동을 목격하게 되었고 제암리 교회 방화 사건(교인 29명 불에 타 사망)을 세계에 알렸다. 그리고 일본 군인과 경찰이 독립운동 가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내용을 영어신문으로 제작해 세계 각국에 전한 독

립유공자다. 일본 경찰은 외국인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가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암살을 시도했다. 마침내, 그날 스코필드 박사는 실험실에서 연구에 몰두하다가 밤늦게 귀가하는 바람에 화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스코필드 여사는 그 사실을 알고는 큰 충격을 받아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다. 결국 스코필드 박사는 1921년 아내와 함께 캐나다로 돌아왔다. 이후 스코필드 박사는 최선을 다해 아내의 병간호를 했다. 하지만 스코필드 여사는 1959년 고인이 됐다. 그 후 스코필드 박사는 한국을 다시 찾아가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많은 고아를 돌봤다. 그러다 보니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아내 스코필드 여사의 묘소에 묘비 하나 세우지 못했다.

그런데 얼마 전 스코필드 박사의 손자인 딘 스코필드가 묘비가 없는 할머니 묘소를 찾아냈다. 올해 스코필드 재단(Schofield Foundation)을 설립한 김만홍 목사님이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묘비를 만들어 설치했다. 그리고 지난 11일 제막식을 가졌다. 나는 김 목사님의 초청으로 제막식에서 영어 추모사를 했다. 내게는 생전의 스코필드 박사를 만났던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스코필드 박사의 후손들조차 책이나 역사 기록을 통해 그를 알 뿐이었다. 내가 기억을 더듬어 추모사를 시작하자 모두 눈물을 글썽였다. 내가 한영으로 쓴 책 ‘잊을 수 없는 스코필드 박사’와 에펠바이스의 추억’을 20여 권 갖고 가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너무나 좋아했다. 온타리오 주 조셉슨 시니어 복지부 장관도 행사에 참석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생겨 참석하지 못했다. 조 장관은 이튿날 나를 조찬에 초청했고 나는 책 한 권을 선물했다. 조 장관은 나중에 전화로 책을 완독했다며 너무 감명 깊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나를 만나러 미국에 오겠다고 해 무척 기뻐했다. 스코필드 박사 부부도 하늘나라에서 매우 기뻐 하리라 믿는다.

맛있는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비즈니스의 안전한 길잡이!! 중양일보

① 워싱턴 중양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coway

코웨이와 함께

여름준비 프로모션

2024년 5월 29일 ~ 6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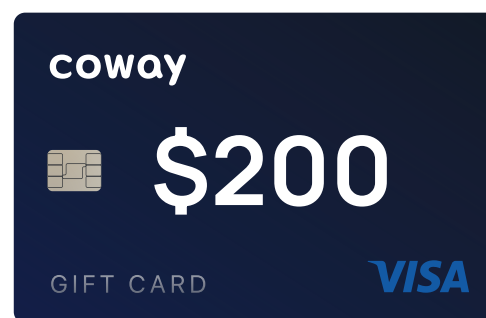
CHPI-620L PLUS

CHPI-280L

프로모션 1

아이스정수기 구매시

\$200 기프트카드 증정



• 주문조건 : 렌탈 혹은 일시불
• 해당제품 : CHPI-280L, CHPI-620L PLUS

프로모션 2

해당제품 2대 구매시

LG 코드제로 청소기 증정

\$400
Value



• 주문조건 : 렌탈 1대 + 렌탈, 재렌탈 혹은 일시불 1대
• 해당제품 : P-6320L, CP-6330L, CHP-6330L, CHP-251L, CHP-671L, CHP-5722L, CHP-5710L, CHPI-280L, CHPI-620L PLUS, AP-1516D, AP-2021A, AP-3018B, BA-13, BAS-22, BB-14, Massage Chair
• 고객번호당 1회 제한

프로모션 3

안마의자 구매시,

\$900(등록비) 할인



CM-9000

• 해당제품 렌탈시 (등록비 \$900 구간 only)

사은품은 조기 품절 시 사전공지없이 다른 사은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판매인에게 문의바랍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한은 당사에 있습니다.
본 디자인은 당사의 지적재산으로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합니다.

DMV지역 코웨이 법인매장



베세토 지하 1층
822 N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센터빌 롯데
5900 Centreville Crest Ln, Centerville, VA 20121



센터빌 H MART
13818 Braddock Rd, Centerville, VA 20121

제품 구입 및 문의는 해당 매장을 방문해주세요



Washington, DC **703-992-0835**



Re:BLUETION
깨끗함의 무한책임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지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민 / 유언장
T. 571.405.6540

중영 Saturday+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대표전화 : (703)281-9660

Saturday, June 1, 2024 C

연방파산법이 지정한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증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규방을 나온 자수, '여성 해방' 도구가 되다

“6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상류층의 혼수용품으로 자수 병풍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에는 이름난 자수장인의 병풍 하나가 한남동 작은 아파트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그런 전통자수 병풍을 팔아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여유를 얻어 사람들이 별로 사주지 않는 현대미술 자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달 1일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분관에서 시작한 '한국 근현대 자수: 태양을 잡으려는 새들'의 기획자인 박혜성 학예연구사의 말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자수장인 한상수(1935~2016)의 크고 호화로운 '궁중자수 모란도 병풍'을 보면 그 높은 가격이 이해가 가고, 또 다른 국가무형문화재 자수장 최유현(88)의 기하학적 추상미술 자수 '태양을 잡으려는 새들'을 보면 단순 기능성이 아니라 예술인이고자 했던 그들의 의지를 알 수 있다. 수목추상 대가 서세옥(1929~2020)에게 밑그림을 요청해 제작한 작품이다.



1 최유현 '태양을 잡으려는 새들' (1968). 2 한상수 '궁중자수 모란도 병풍' (1978).
[사진 국립현대미술관]

자수장인 병풍, 한남동 아파트 한 채 가격 40여명 작가들의 170여 작품과 50여 점의 아카이브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한국 근현대 자수를 현대예술의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재평가하는 전시다. 1부에서는 19세기 한국 전통자수 유물을 선보이고, 2부에서는 일제강점기 도쿄 여자미술전문학교(현 여자미술대학) 자수와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근대 자수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3부에서는 국내 최초의 대학 자수과인 이화여자대학교 자수과(현 섬유예술과) 졸업생들과 연례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 참여한 자수 작가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추상미술 자수 등 실험적 작품을 살펴본다. 4부에서는 60~70년대 산업화 시대

에 최고의 관광상품이자 혼수품이었던 전통자수 병풍들을 다룬다. 전통자수와 현대자수를 넘나들던 이들 중에 박 연구사가 특히 주목한 인물은 송정인(87)으로 그를 위해 전시실에 별도의 방을 마련했다. 1960~70년대의 음악적이고 울동적인 형태의 추상 자수 작품들이 인상적이다. “사실 이분은 정규교육은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했지만 일제강점기부터 자수 보급에 힘쓴 수산 권복해 선생에게 1년 정도 자수를 배운 후 독학으로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또한 화방에서 회화를 배웠고 부산 지역 화랑을 돌면서 현대미술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통자수로 돈을 버는 한편, 실험적인 현대자수로는 전통 도안이나 자연경관 대신 정신적인

풍경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죠.” 왜 이들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자수를 했는가 묻는다면, 전시장에서 실물로 보아야 알 수 있는 자수작품만의 독특한 질감과 입체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자수작품은 어떤 빛에서 어떤 앵글을 발휘한다. “그래서 도록을 만들 때도 어떤 광원의 사진으로 정할지 애를 먹었다”고 박 연구사는 설명했다. 또한 이들이 자수를 하게 된 데에는 아직 가부장제가 강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쉽지 않던 시대에 옛 질서와 정면충돌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지위를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적지 않

은 한국 여성들이 도쿄 여자미술전문학교 자수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보수적인 부모들이 회화나 조각 공부는 허락해주지 않아도 자수 공부는 허락해주었죠. 이 학교는 ‘예술에 의한 여성의 자립’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의 건학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졸업한 학생들이 한국에 돌아와 교편을 잡고 그러한 정신을 전파했죠.”

남성 자수장인 집단 ‘안주수’ 작품도 전시 박 연구사는 20세기 한국 자수사를 잘 보여주는 인물로 박을복(1915~2015)을 꼽았다. 문순영 기자 >> 3면 '자수'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출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 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칸은 영화계 마피아, 77년 역사를 읽어야 뚝을 수 있다

영화를 잘 만들어야 칸 영화제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영화만 잘 만들어서는 딱 한번만 갈 수 있을 뿐이다. 칸을 계속, 아니 자주 가려면, 그래서 경쟁이든 비경쟁이든 꾸준히 초청을 받으려면, '영화만' 잘 만들어서는 갈 수가 없다. 거기에는 뭔가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있다. 칸 영화제는 세계 영화권의 가장 강력한 마피아다.

그건 마치 마틴 스콜세이지의 영화 '좋은 친구들, Goodfellas'(1991)의 내용과 흡사하다. 일개 조무라기 강패였던 헨리(레이 리오타)와 토미(조 페시)는 조직원인 지미(로버트 드 니로)의 후원으로 정식 입문 과정을 거쳐 마피아의 멤버가 된다. 이후 그들은 호의호식한다. 그러나 곧 서로 죽고 죽이는, 혈전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칸도 패밀리에 대한 예우와 멤버 챙기기가 극심할 정도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마피아와는 다르게 칸은 후대를 발굴하고, 새로 챙기고, 세대교체에 앞장 선다. 올드&뉴를 동시에 쥐고 흔든다. 전통과 새로움을 동시에 구현한다.

칸에 입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심사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칸은 한 번 수하로 받아 들이면 웬만해서는 평생 내치지 않는다. 영국의 켄 로치 감독은 영화를 만들 때마다 거의 매년 칸 경쟁 부문에 초청을 받았다. 켄 로치는 마지막 작품 '나의 올드 오크'를 만든 후 '이



2019년 '기생충'으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왼쪽)과 배우 송강호. [EPA-연합뉴스]

2024 제77회 칸 주요 수상작

황금종려상	아노라(선 베이커 감독)
심사위원대상	올 위 이매진 애즈 라이트 (피알 카파디아 감독)
심사위원상	에밀리아 페레스(자크 오디아르 감독)
여우주연상	아드리아나 파스, 설리나 고메즈,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 조이 살다나 (에밀리아 페레스)
남우주연상	제시 플레렌스(카인드 오브 빈드니스)
특별감독상	모하마드 라슬로프 감독 (더 서드 오브 더 세크리드 피그)



제 그만 은퇴하겠다. 지쳤다"는 말을 칸을 통해서 할 정도였다. 고레에다 히로카즈도 칸이 '최애'하는 감독 중 한 명이다. 칸은 그를 통해 일본 영화와의 고리를 단단히 조인다. 그의 작품은 남우주연상('아무도 모른다' 2004), 심사위원상('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2013)을 거쳐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어느 가족' 2018)을 거머쥐었다. 20년 동안 칸은 고레에다와 함께 했다. 일본의 작가주의는 칸이 보장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그런 과정의 결과가 이제는 하마구치 류스케의 화려한 등극으로 나타난다.

홍상수는 칸 대신 베니스-베를린 선택 박찬욱, 봉준호도 일단은 칸과 가깝게 지낸다. 박찬욱도 고레에다처럼 칸에서 세 번을 수상(심사위원 대상, 심사위원상, 감독상)했다. '올드 보이'(2005)로 시작해 '박쥐'(2010)를 거쳐 '헤어질 결심'(2022)까지 근 20년 동안 칸과 박찬욱은 같이 했다. 이보다 늦은 봉준호는 새 작품 '미키17'을 올해 칸 경쟁으로 보내려 했으나 제작 일정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정이 맞았다면 이번에도 '기생충'에 이어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칸은 그런 곳이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자신들이 대우하려고 한 인물이 '배신'을 하면(다른 영화를 가거나 기웃거리거나 하면) 가차없이 그에게 등을 돌린다. 홍상수 감독은 '여자는 남



1 지난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77회 칸 영화제 폐막식에서 '아노라'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선 베이커 감독. 2 칸 영화제의 로고이자 트로피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잎사귀. 3 제77회 칸 영화제 주요 수상자들. [AFP-로이터-연합뉴스]

자의 미래다' 등으로 칸의 주요 감독 리스트에 올랐지만, 자신에게 상을 주는 베니스와 베를린을 선택했다. 최근 5년간 그는 베를린영화제에서 여러 번 수상을 했다. 베를린과 홍상수 양 측 모두 전략적 선택을 한 결과다.

국내에서 칸 영화제에 관한 한 최고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김홍준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은 세계 영화제를 칸과 칸이 아닌 것, 곧 기타 영화제로 이분화할 정도다. 영화제들은 대체로 단일 조직 체제를 지향한다. 조직위원회가 있으며 그 밑에 집행부와 사무국을 둔다. 프로그래머들은 집행위원장의 관리하에 활동한다. 수직 체계이고 정관과 내규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칸은 다르다. 칸 안에는 수평적 조직이 다수 존재한다. 그게 언론지상을 통해 자주 들리게 되는 '주목할 만한 시선', '비평가 주간', '감독 주간' 등이다. 여기에 경쟁 섹션이 있고 비경쟁 부문인 '미드나잇'과 '칸 클래식' '칸 프리미어' 등이 있다. 모두 공식 부문에 포함되는 것이다. 칸은

이를 통해 한 지붕 네 가족, 혹은 다섯 가족을 형성한다. 이들은 수직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 구조를 이루어 낸다. 복잡하고 때론 난삽해 보여도 칸은 이 '평등성'을 버리지 않는다. 이는 곧 왕가 정치(부르봉 왕조)에서 사회주의 혁명(파리 코뮌)까지 겪어 낸 프랑스식 역사의 산물이다. 궁정 정치의 유산은 막후와 타협, 조율의 행태로 나타난다. 왕가에 충성을 바치면 후한 대우를 받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그래서 다소 시대착오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칸에 초청을 받고, 주 상영관인 튀미에르 극장에 입장할 때 모두들 턱시도와 넥타이, 이브닝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 그 '거추장스러운' 드레스 코드를 고집하는 것, 그렇게나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 전통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그런데 반대로 프랑스 특유의, 그리고 칸 고유의 '혁명적 근성'은 늘 새로운 트렌드를 가장 앞장 서서 찾아내게 하고 자신의 영화제에 투입시키며 그림으로써 세계 영화 문화를 선도해 내게 한다. 중국의 5세대 감독(첸 카이거, 장 이모우)과 6세대 감독(로우 예), 중국 내 반체제적 독립영화감독(지아장커)을 세상에 내놓은 것이 칸이었다. 이란의 그 무수한 감독들(압바스 키아로스타미, 모흐센 마흐말바프), 한국의 뉴코리안 시네마 감독들(이창동·홍상수·박찬욱·봉준호 등)은 칸을 통해 세계적 위상을 구축해 냈다.

봉준호 새 작품 '미키17'은 일정 못맞춰 칸의 조직 구성은 시간과 세월이 흐르며 차곡차곡 쌓여진 것이다. 감독 조합이 만들어진 후 칸은 감독주간 부문을 파트너로 받아 들였으며 비평가 주간은 6·8혁명의 과정에서 평론가들의 영화적 정신, 영화가 지녀야 할 저항과 개혁의 모토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지난 77년간 겪었던 사건, 전쟁과 경제 불황, 혁명과 반혁명, 수없이 일어난

정치사회적 변화를 읽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영화제는 그 나라 영화의 역사이며 그 나라 역사 그 자체이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영화제가 갖고 있는, 시대를 관통하는 바로 그 통시성(通時性)이다.

칸이 세상에 대한 날카로운 예감을 지녔다는 점은 지난 10년의 경쟁작 리스트를 봐도 잘 알 수가 있다. 2015년도 드 헤인즈의 '캐롤'은 1950, 60년대 억압받았던 레즈비언의 사랑 얘기를 다룬 작품이었고 2016년 켄 로치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유럽사회의 노동 복지 문제를, 2017년 봉준호의 '옥자'는 동물권과 인권의 가치를 옹호한 것이었다. 2018년의 '가버나뭇'은 현 세계의 핵심 문제인 시리아 난민 문제를 애기한 것이었다. 2022년에는 이란 내의 매춘과 살인극을 다룬 '성스러운 거미'의 여배우 자르 아미르 에브라히미에게 여우주연상을 타게 했다. 올해 황금종려상은 놀랍게도 '아노라'를 만든 미국 감독 선 베이커에게 돌아 갔는데 칸이 미국 감독에게 상을 주는 것은 드문 일이다. 미국의 전설적인 작가주의 감독 테렌스 맬릭이 '트리 오브 라이프'로 그랑프리상을 받은 것이 2011년이였다. 13년만의 일이다. '아노라'는 스트림 쇼컬이 러시아 부호와 결혼하며 겪는 해프닝을 그린 내용이다. 여우주연상도 한 작품에 출연한 여배우 네 명에게 공동으로 주는 이번이 벌어졌는데 칸이 사랑하는 자국 감독 자크 오디아르의 '에밀리아 페레스'의 여배우들이다. 트랜스젠더의 얘기를 다룬 작품이며 그 중 한 명은 실제 성전환 여배우이다. 올해 칸은 여성의 가치, 트랜스젠더의 인권, 성차별의 문제에 주목한 것이다.

한국영화는 류승완의 '베테랑'가 미드나잇 부문에서 상영됐다. 비경쟁이고 상업영화가 상영되는 섹션이다. 김동호 부산영화제 전 이사장의 영화 인생을 다룬 '영화 청년 동호'는 칸 클래식에서 상영됐다. 패밀리를 극진하게 대하는 칸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다. 어쨌든 올해 경쟁 부문에 진출하지 못한 한국영화는 지금 칸이 추구하는 영화적 모토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며, 영화 정신을 갖춘 작품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한국영화는 영화를 잘 만드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올해의 칸이 주는 반 면교사다. 오동진 영화평론가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난 엄마 마에스트라 이영애처럼 지휘하면 요즘 다 도망가요

배우 이영애의 최근작 '마에스트라'는 기대했던 음악드라마는 아니었지만, 남성중심으로 돌아가는 클래식 업계에서 고독한 여성 리더의 포스를 뽐어내는 이영애의 냉철한 카리스마 연기를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젠더 파괴의 시대에 아직 '남성적 세계'가 좀 있다. 음악에선 대표적인 게 오케스트라 지휘다. 합자량을 하는 일도 아닌데 아직 남성 비율이 절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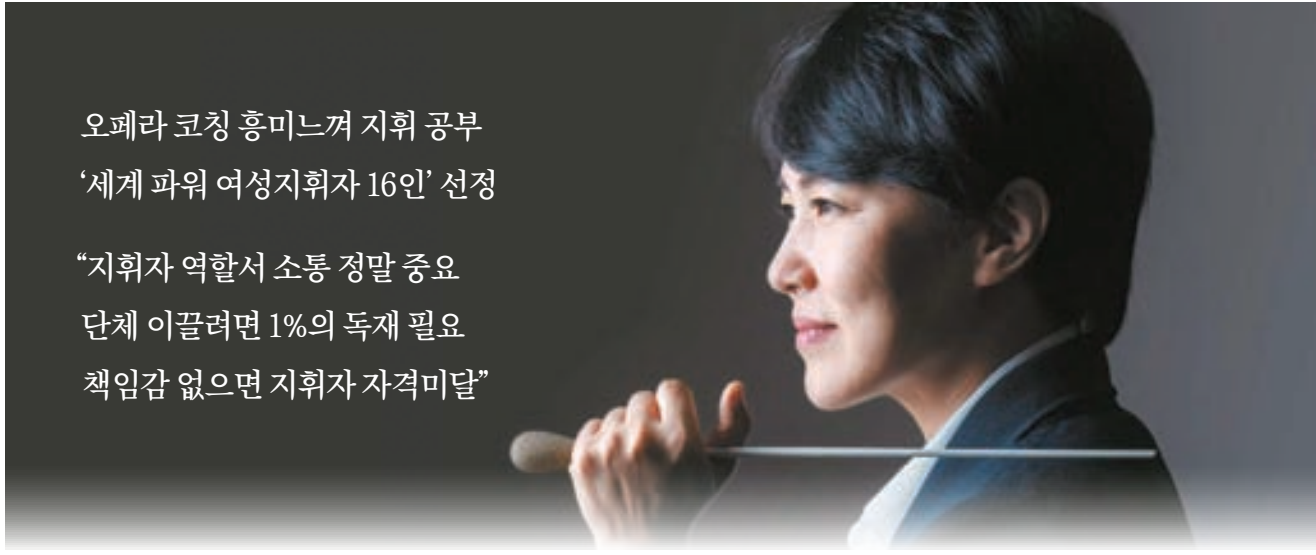
한양대 대학원 '지휘전공 1호'로 유명
지난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서울시오페라단(단장 박해진) 시즌 개막작 '라트라비아타-춘희'를 4일간 이끈 마에스트라는 여자경 대전시향 예술감독이었다.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자 손지훈, 카디프 콩쿠르 우승자 김기훈 등 초특급 오페라가수를 비롯해 200명에 가까운 연주자들이 1900년대 경성 배경으로 옮긴 낯선 무대에서 베르디의 음악을 역량껏 펼칠 수 있게 한 것이 그의 리더십이었다. "각색된 무대가 연주자들에게 쉽지 않죠. 장면이 바뀔 때마다 음악의 템포와 호흡도 다르거든요. 그래도 너무 좋은 가수들을 만나서 즐거웠어요. 사실 교향악 지휘가 훨씬 편하지만, 저는 오페라 지휘를 더 좋아하죠. 많은 분야 사람들과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성공적인 무대를 향해 가는 게 재밌잖아요."

오페라 공연에선 흔히 오케스트라 피트 위로 솟은 지휘자의 뒤통수가 보인다. 여자경은 뒤통수 대신 열정적인 지휘봉만 보이는 작은 체구다. 한양대에서 작곡을 전공했지만 '지휘전공 1호'로 유명한데, 당시 대학원에 없던 지휘와 개설의 계기가 되서다. 그런데 지휘자가 되려고 지휘를 전공한 건 아니라니, 반전의 연속이다. "오페라 때문에 지휘공부를 하게 됐어요. 대학 오페라에 피아니스트로 참여했는데 성악가들 코칭하는 게 재밌더군요. 지도 교수님이 오페라를 하려면 지휘를 해야 한다면서, 본인 경험을 살려 커리큘럼을 만들어주셨죠. 여자로서 승산이 있겠냐는 소리도 들었지만, 저는 지휘자가 되려던 게 아니라 지휘라는 학문이 궁금했어요. 오페라 코치나 교단에서고 싶은 생각이었죠."

임운찬의 반 클라이번 콩쿠르 파이널 무대를 지휘하고 눈물을 흘렸던 마린 알숨이 런던 음악축제 BBC 프롬스 페막 공연 최초의 여성 지휘자로 오른 2013년 이래 세계 주요 무대에서 여성이 약진하고 있다. 성시연-김은선-장한나 등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한국 여성도 꽤 있다.

여자경도 2020년 클래식 전문지 객석이 꼽은 '세계의 파워 여성지휘자 16인' 중 하나다.

하지만 그가 시작한 1990년대만 해도 성공사례가 거의 없었다. "한국에



오페라 코칭 흥미느껴 지휘 공부
'세계 파워 여성지휘자 16인' 선정
"지휘자 역할서 소통 정말 중요
단체 이끌려면 1%의 독재 필요
책임감 없으면 지휘자 자격미달"

서 배움의 장도 좁은 시절이었어요. 빈에 유학을 간 것도 내가 잘 배워서 좋은 지휘자 육성을 하고 싶어서였죠. 그런데 학교가 아니라 연주 쪽으로만 기회가 이어지더군요. 그렇게 조금씩 알려지면서 여기까지 왔네요.(웃음)"

짧은 커트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무채색 일상복 차림의 그는 얼핏 중성적으로 보이고, 목소리 톤도 아주 낮았다. 그런데 지휘의 영역이 '남성적 세계'라고 인정하면서도 여성이라 특별할 건 없다고 했다.

"남자였으면 좀 편하게 했을텐데 하는 생각은 가끔 해요. 출장을 가도 남자들은 짐싸서 가면 되는데 나는 아이의 일주일 먹거리를 다 준비해놓고 가야하니까요. 일하는 엄마들이 다 그럴테죠. 사실 올해 아이가 스무살이 돼서 조금 자유로워졌지, 그동안 애 밥 챙기느라고 쪽쪽부하면서 살았거든요. 모든 걸 다 직접 해 먹이는 편이라 해외에서 콜이 와도 못갔어요. 일 욕심도 많지만 엄마가 1순위란 생각으로 살았으니까요. 엄마가 지휘하는 거죠 뭐.(웃음)"

엄마의 그림자를 드러내니 솔직히 마에스트라의 카리스마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수십명 연주자를 일사불란하게 단결시키려면 '마에스트라'의 이영애나 영화 '타르'의 케이트 블란쳇처럼 강인한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한 것 아닐까 싶은데, "나는 포디움 위아

래가 똑같다"고 답한다. "베토벤 바이러스란 드라마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면 다시는 폴을 못 받아요. 같은 동료인데 내가 지휘라는 파트를 맡은 것일 뿐,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게 지휘자 역할은 아니죠. 소통이 정말 중요하고, 단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않아요. 단원들을 음악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게 지휘자의 카리스마죠. 지휘자 말이 맞다고 느껴야 소리를 내니까. 그러니 포디움 위에서 나 자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최근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춘희' 지휘
같은 악보라도 지휘자에 따라 다른 음악이 탄생하니, 방점은 악보 해석에 찍힌다. 해석의 기준은 "악보의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란단다. "악보의 70~80프로는 누구나 생각하는 정답이 있고, 나머지 20~30프로를 지휘자 해석으로 제안하게 돼요. 작곡가가 그 시대적 배경에서 악보에 마킹한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남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걸 찾아내서 그대로 실현에 옮기기를 추구하면서 거기에 약간의 내 색채를 입히는 정도죠. 그랬을 때 연주자들이 동조하게 하는 게 지휘자 역할이 고요."

지난해부터 그가 이끌고 있는 대전시향은 올해 40주년을 맞았다. 10일에는 40년 전 창단 연주를 오마주한 특별 공연으로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 5번

을 직접 지휘한다는데, 그의 해석은 뭐가 다를까. "차이콥스키가 교향곡 3악장에 왜 왈츠를 썼을까. 아직 요한 스트라우스가 살아있었고, 파티장에서 왈츠 추는 게 한창 유행이었기에 가져왔겠지 하고 유추를 해봐요. 후원자에게 5번 교향곡이 실패작이라고 털어놨던 만큼 전반적으로 우울한 모티브가 깔려있는데, 3악장만 유독 밝은 이유죠. 그런 걸 알고 접하느냐 아니냐는 사운드를 만들어갈 때 굉장한 차이거든요. 그런 보이지 않는 악보의 비밀에 예민하게 접근할 때 나만의 색채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그리고보면 지휘자란 센 직업이 아니라 굉장히 섬세한 일이다. 차별화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게 다양한 오케스트라의 존재이유라서다. "예전엔 권위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게 카리스마인줄 알았지만, 요즘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가지 누가 따르나요. '타르'의 케이트 블란쳇이 멋있긴 해도 2024년에 그렇게 하면 지휘 못해요. 물론 단체를 끌고 갈 때 민주주의를 완전히 내버려두면 하나로 가져갈 수 없고, 1%의 독재가 가미되어야 하는 건 맞아요. 그 1%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만큼 책임감이 있어야 리더라 생각해요. 좋은 건 너희 덕이고 안 좋은 건 내가 책임진다. 그 마음가짐이 없으면 지휘자 자격미달입니다."

유주현 기자

▶ 1편 '자수'에서 이어집니다

2부에 그의 도쿄 여자미술전문학교 졸업작품인 '국화와 원앙'이 그의 밑그림과 함께 나란히 걸려있다. 정교한 도안과 비단실의 호화로운 광택을 잘 드러내는 자수 기법 등이 돋보인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연을 관찰해서 사실적인 밑그림을 직접 그리도록 했고 그림으로써 자수를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고자 했다"고 박 연구사는 설명했다. 그 후 박을복은 귀국

해서 이대 등에 출강하고 국전에 참여했다.

이때 여자미술전문학교 후배인 중요한 화가 박래현(1920~1976)과 교류하고 영감을 받으며 현대미술로서의 자수작품도 창작했는데 그러한 작품들은 3부에 나와있다.

"국전은 자수 작가들이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주요 통로였고 송정인 선생을 알게 된 것도 국전 자료를 찾으면서였습니다."라고 박 연구사는 설명했다. "이분은 한편으로는 서울에

올라와 외교관 부인 모임에서 전통자수를 가르치기도 했는데, (혼수용으로 고가에 잘 팔리는) 전통공예는 상품이고 추상작업은 예술이라는 모더니즘 담론의 이분법을 갖고 계셨지요."

이번 전시에 여성만의 작품만 있는 것은 아니다. 1부에는 평안도 안주의 남성 자수장인 집단 '안주수'의 작품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 집단 소속의 장인 안제민의 '자수 지장보살도'(1917)는 사찰 밖에서 전시되는 것이 처음이다.

또한 1부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소장품인 '자수 준이종정도 병풍'도 포함되어 있다. 높이 2m를 넘는 스케일과 남채색 공단에 금색 명주실로 단정하게 고대 중국의 청동 제기가 수놓여있는 모습이 매우 장엄하다. "명성황후 집안에 있던 것으로 90년대에 재일교포 역사학자 신기수가 구입한 후 유족에 의해 기증되었다"고 박 연구사는 설명하며 "제사에 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역시 이번 전시의 주된 작가

들은 아직 여성의 제약이 많았던 20세기 초중기에 자수를 통해 경제적 자립과 예술적 성취를 이루어냈던 여성들이다. "올해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에도 자수와 직조 작품이 많이 나왔고 최고상인 황금사자상 역시 섬유 설치작업을 하는 뉴질랜드 마오리족 여성작가 그룹에게 돌아갔죠. 자수와 직조를 예술의 차원에서 재평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라고 박 연구사는 말했다.

문소영 기자

지금
연락 주세요!

보험료가 반값! 바로 확인해 보세요~!

사업체 보험

직장상해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703-537-9899 | 703-591-0009

👉 자동차 보험료 👉 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미국 굴지의 탑 보험회사가 오퍼하는 확실한 보험"

• 저렴한 보험료 • 확실한 커버 • 신속 친절 서비스

조은혜 종합보험

571-232-0702 | 703-591-0009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페어팩스 법원 건너편/모스비 타워)

*Top Major 보험회사와의 직접연계로 확실한보장, 저렴한 보험료, 안전한 회사

Partner
보험회사

28살 할리우드 여전사가 7000만 배우 마동석의 흥행 독주를 꺾었다. 할리우드 영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이하 퓨리오사)'(감독 조지 밀러)의 주연 배우 안야 테일러 조이다.

호주 거장 조지 밀러(79) 감독의 이 다섯 번째 '매드맥스' 신작은 지난달 22일 한국 개봉과 동시에 '범죄도시 4'를 밀어내고 극장가 정상에 올랐다. 영화 관입장권통합전산망 기준 지난달 28일 까지 누적 관객 수는 65만명이다.

앞서 15일 '퓨리오사'가 월드프리미어로 공개된 프랑스 칸국제영화제(비경쟁부문)에선 8분간 기립박수가 터졌다. 2020년 넷플릭스 최고 흥행 시리즈 '퀸즈갬브' 속 각쟁이 체스 신동 역에 이어, 올초 SF 화제작 '들편: 파트2'에서 사막 행성의 구원자 폴(티모시 살라메)의 여동생 역할로 '신스틸러'로 떠오른 그다. 첫 블록버스터 주연을 맡은 '퓨리오사'에선 더 지독한 모래폭풍에 뛰어든다. 삭발 이마를 검은 기름때로 덮은 외팔이 전사의 모습이 전작들과 판판이다.

9년 전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이하 매드맥스4)'에서 배우 샤를리즈 테론이 연기한 전사 퓨리오사를 21살 어린 그가 넘겨받았다. 문명 붕괴 45년 후, 풍요로운 고향에서 납치당한 퓨리오사는 바이커 군단의 폭군 디멘투스(크리스 험스워스)에게 모든 것을 잃고 복수에 나선다.

밀러 감독은 멜 깁슨 주연의 '매드맥



지난 22일 개봉한 영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는 문명 붕괴 45년 후 황폐해진 세상에 처한 전사 '퓨리오사'(안야 테일러 조이)가 바이커 군단의 폭군에 맞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사투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다. [사진 워너브러더스 코리아]

대사는 단 30줄 눈빛이 곧 서사

스' 3부작(1979~1985)을 30년 만에 재시동 건 전작에서 퓨리오사를 탄생시켰다. 4편에서 퓨리오사는 황폐화한 세상의 독재자 임모탄에게 감금 당한 여성 성노예들을 구출한다. 버라이어티 등 외신은 "2018년 세계적인 '미투' 운동보다 3년 먼저 여성의 억압된 분노를 표출한 캐릭터"로 주목했다.

이번 신작에서 퓨리오사는 세상을 망가뜨린 폭군들의 어리석은 전쟁을 목도하며 처절한



안야 테일러 조이

응징을 준비한다. 마블 히어로 영화 '토르'의 근육질 스타 크리스 험스워스가 맡은 디멘투스에게도 퓨리오사는 "지옥보다 깊은 무덤에서 기어 나온" 두려운 상대다.

항공기 엔진 등을 장착한 자동차 35대, 오토바이 110대의 물량 공세를 퍼부은 액션 장면에서 관객의 뇌리에 남는 건 단연 퓨리오사의 형형한 눈빛이다.

"입은 다물고, 감정 없이, 눈으로 말하라." 촬영 당시 조지 밀러 감독이 안야 테일

러 조이에게 수없이 강조했다. 주문이다. 지난달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조이가 직접 밝힌 내용이다. 상영시간 148분을 통틀어 퓨리오사의 대사는 단 30줄. 밀러 감독이 운전면허도 없는 그를 캐스팅한 것도 블랙홀 같은 커다란 눈이 한몫했다.

영국·스페인계 어머니, 스코틀랜드·아르헨티나계 아버지에게 이국적인 외모를 물려받은 안야 테일러 조이는 영화 '어톤먼트'(2007)에 감명받아 배우를 꿈꾼다. 16살 때 부모님을 설득해 모델 일로 경력을 시작했다. TV 드라마

등 조·단역을 거쳐 17세기 흑마술 공포물 '더 위치'(2015)로 처음 선댄스영화제에서 얼굴을 알렸다.

데뷔 초 미간이 넓은 편인 얼굴이 SNS에서 물고기 같다고 조롱받으면서 조이는 거울 기피증을 겪기도 했다. 오토바이 사고로 오랜 기간 트라우마에도 시달렸다. 그러나 '퓨리오사'는 이 모든 걸 극복하고 반드시 잡아야 할 기회였다.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그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에 놓이고 싶었고, 해냈다"며 "나는 내가 지킬 수 없는 사람(퓨리오사)과 사랑에 빠졌다. 이 영화보다 더 외로웠던 현장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새벽 1~2시에도 촬영을 감행한 현장에서 더 다부진 몸 표현을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혹독할 거라 예상한 액션 훈련은 감정을 절제한 연기에 비하면 오히려 수월했다. 퓨리오사에 대한 밀러 감독의 구상이 워낙 확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장면만 큼은 조이도 몰라지지 않았다. 퓨리오사가 분노에 차 포효하는 장면이다. 3개월에 걸쳐 감독을 설득해 얻어냈다.

'퓨리오사'가 북미 흥행 1위를 휩쓸면서 그도 몸값이 높아졌다. '들편' 3편 출연도 점쳐진다. '들편' 시리즈의 드니 빌뇌브 감독은 버라이어티와 인터뷰에서 "안야와 촬영하며 그의 관대함, 솔직함, 열정에 감동받았다. 그와 함께 아라키스('들편' 행성)로 돌아가고 싶다"고 전했다. **나원정 기자**

tvN 월화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이하 '선업튀')가 지난달 28일 시청률 5.8%(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로 자체 최고 기록을 세우며 종영했다.

'선업튀'는 톱스타 류선재(변우석)와 팬 입술(김혜윤)의 타임슬립 로맨스물이다. 입술은 열렬하게 응원해 온 아이돌 가수 류선재가 죽자, 2008년으로 돌아와 '최애' 류선재 지키기에 열의를 다한다. 평균 시청률은 4%대로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5월 내내 TV-OTT 화제성 조사(굿데이터코퍼레이션)에서 1위를 지켰다.

특히 'Y2K 복고' 코드로 3040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백화점에 마련된 팝업스토어에는 새벽 5시부터 입장 대기 등록하려는 줄이 늘어섰고, 최종화의 극장 단체관람 이벤트에는 30배 넘는 가격의 압도도 등장했다.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에픽하이와 윤하가 2008년 함께 부

폴터폰 쓰던 그 시절로... 레트로 감성에 3040 무장해제

른 '우산'이 흐르는 가운데, 선재가 술에 취한 우산을 씌워주는 장면이 시청자들은 뜨겁게 반응했다. 술이 노란 우산을 들고 선재를 향해 뛰어오는 등 비 오는 날 우산 씌우는 드라마에서 여러 차례 변주된다. 귀여니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늑대의 유혹'(2004) 속 강동원의 우산 장면에 비견된다. '밀당' 없이 첫사랑에 몰두하는 남녀 주인공의 모습도 귀여니식 순정 만화 서사를 닮았다.

뻘한 첫사랑, 흔한 타임슬립 판타지에 그칠 수도 있었을 '선업튀'는 2008년을 배경으로 차별점을 뒀다. 박태환이 한국 수영 최초로 금메달을 딴 베이징 올림픽(2008년) 무렵으로 시기를 특정하고 '09학번', 30대 중반 주인공들의 회귀물로 구성했다. 2019년부터 카카오페이지에 연재된 김병 작가의 원작 웹소설 '내일의 으뜸: 선재 업고 튀



'선업튀'는 2000년대 복고를 배경으로 애절한 판타지 로맨스를 그려내, 신드롬 인기를 모았다. [사진 tvN]

어'보다 10년 가량 앞선다. tvN 박상혁 채널사업부장은 앞서 제작발표회에서 "월화 드라마, 청춘물이라는 장르 한계에도 불구하고 OTT 주 시청층을 TV 앞에 불러 모으고자 했다"고 말했다.

2000년대는 1980~9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응답하라' 시리즈가 다루지 못

한 시기다. 비디오 대여점 딸 술은 토스트 리필이 되는 생과일 카페 '캔모야'에서 친구를 만나고, 좋아하는 남학생의 '싸이월드'를 찾아가 일촌 신청을 한다. 폴터폰을 사용하며 MP3 플레이어 음악을 듣는 그의 플레이리스트는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2007), 소녀

시대의 '소원을 말해봐'(2009), 드라마에 삽입된 김형중의 '그랬나봐'(2003)는 20여 년만에 차트에서 역주행하기도 했다.

동티대 방송연예과 이동규 교수는 "온라인이 발전하면서도 낯설게 대로의 오프라인 감성이 살아있던 2000년대만의 분위기가 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가공되어 버린 온라인 감성에 대한 반발과 오프라인 감성에 대한 그리움이 'Y2K 복고'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대본은 'SKY 캐슬'(JTBC)로 얼굴을 알린 김혜윤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지만, 남자 배우를 찾지 못해 제작이 3년간 지연됐다. 연예인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팬덤을 그린 작품으로 오해받은 탓이다.

'선업튀'로 선재 열풍을 일으킨 변우석은 다음 달부터 대만 타이베이로 시작으로 방콕·서울·홍콩 등에서 생애 첫 아시아 투어를 연다. **황지영 기자**

곽태우 변호사

"K 로펌을 소개합니다!"

K 로펌의 곽태우 대표변호사는 상업 및 이민법 전문변호사입니다.

2002년부터 곽 변호사는 비즈니스 구조화에서부터, 사업체 매매, 상업부동산 매매 및 상업이민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의 중소기업에 도왔습니다.

또한 미국에 11살때 온 한인 1.5세로 최초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되어 국제거래법을 가르쳤으며, 이후 대한민국 주미국대사관 워싱턴 DC 총영사관의 자문변호사로 각종 미국연방법에 관한 자문과 기업체들에 적용되는 연방, 주세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에서 얻은 전문 지식과 더불어 모든 사건에 전적인 관심과 최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입니다.

약력

- 버지니아로 1980년 이민
- 뉴욕주 로체스터대학(이스트만), 동대학원
- 시카고 게렛신학대학원
- 시애틀대학 로스쿨 법학박사(JD)
-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음악감독(전)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전)
- 대한민국 주미국대사관 워싱턴 총영사관 자문변호사(전)
- 버지니아, 워싱턴주 변호사 자격

K 로펌

K LAW FIRM PLLC
www.alexkwakesq.com

571.405.6540

alexkwakesq@gmail.com

7799 Leesburg Pike
Suite 1010 N
Falls Church, VA 22043

첸틀리에 위치한 중식당 **이화**가 드디어 그랜드 오픈합니다!!



그 동안 미국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차별화된 한국식 중식 요리들을
첸틀리 이화에서 맛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마다 주방장 특선 메뉴가 제공됩니다.

특선 메뉴

*Best of Best

해물누룽지탕, 전가복, 오향장육, 동파육

*여름 특선

더운 날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냉짬뽕 (해물물냉면)



Lee Hwa

703-929-2062

13934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GRAND OPEN



KOREAN
BBQ & BAR

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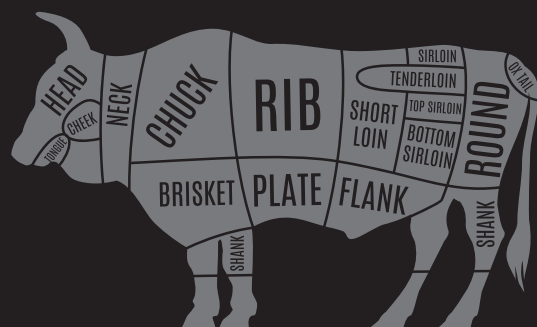
더 구이 코리안 바베큐

게인스빌

그랜드 오픈!!

그 동안 저희 구이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게인스빌에 4호점을 오픈합니다.

새롭게 단장한 메뉴들과 더욱 더 엄격해진 고기 품질로
다시 한 번 코리안 바베큐의 명성에 도전합니다!



www.thequikoreanbbq.com



Gainesville
Chantilly
Fairfax

703-929-2296
703-817-2505
571-591-2955

7390 Atlas Walk Way, Gainesville, VA 20155
13972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10160 Fairfax Blvd. #116-118, Fairfax, VA 22030

미팅·엠티도 관심없다... “태권 종주국 자존심 세울게요”



“지옥훈련도 이를 악물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태권도 종주국의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생각뿐입니다.”

태권도 남자 58kg급 국가대표 박태준(20·경희대)은 7월 파리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올림픽에 처음 출전하는 그는 한국 태권도 대표팀의 선봉장이다. 한국 태권도 선수 중 가장 먼저(8월 7일) 금메달에 도전한다. 한국 태권도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은메달 1개, 동 2개에 그치며 ‘노골드’에 머물렀다. 한국이 올림픽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 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00 시드니 올림픽 이후 그때가 처음이었다. 남자부로 범위를 좁히면 2008 베이징 올림픽 이후 금메달이 끊긴 상태다. 결승전에 진출한 것도 2012 런던올림픽 이대훈(32·58kg급 은메달)이 마지막이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용인의 경희대 국제캠퍼스 태권도 훈련장에서 박태준을 만났다. 그는 “한창 캠퍼스의 낭만을 즐길 대학교 2학년인데 미팅도, 엠티도 안 가고 훈련만 하고 있다. 꼭 올림픽 금메달을 따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남자 태권도의 금맥을 이을 기대주 박태준. 선배이자 롤모델인 이대훈과 함께 훈련하며 기량을 끌어올렸다. [사진 세계태권도연맹]

박태준은 목표로 삼은 건 반드시 이뤄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고 했다.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과정이 바로 그랬다. 박태준은 지난 2월 열린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3전 2승제)에서 대표팀 수퍼스타 장준(24)을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며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장준은 2019 맨체스터 세계선수권 금메달, 2020 도쿄올림픽 동메달 그리고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이 체급 최강자였다.

지난해까지 장준을 상대로 6전 6패로 절대적인 열세를 보였던 박태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파리올림픽 선발전을 앞두고 ‘기본자세’를 아예 반대로 바꾸는 과격적인 전략으로 나섰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왼발을 앞에 두고 경기를 하는 선수였다. 그런데 장준을 넘기 위해 오른발을 앞쪽에 두고 싸우는 훈련을 했다. 축구로 치면 오른발로 슈팅하던 공격수가 득점 찬스에서 왼발로 슈팅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른발을 앞에 둔 박태준의 움직임과 발차기는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공격 패턴을 읽을 수 없어 예측이 불가능해진 선수가 된 것이다.

박태준은 “학창 시절부터 누구한테 두 번 이상 진 적이 없는데, (장)준이 형에겐 여섯 번이나 연달아 졌다”면서 “씩 다 바뀌서 마지막으로 도전했는데

그게 통했다. 덕분에 양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돼 올림픽에서 상대 선수를 혼란스럽게 할 큰 무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박태준의 별명은 ‘신형 태권V’다. ‘태권V’로 불렸던 레전드 이대훈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다. 박태준은 실력은 물론 성장 과정까지도 선배 이대훈과 빼닮았다. 체급도 이대훈과 똑같은 58kg급이다. 고교 3학년이던 2010년 첫 태극마크를 달았던 이대훈은 2021년까지 11년간 세계 정상을 지키며 아시안게임 최초 3연패, 올림픽 은·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태준은 이대훈의 한성고 후배다. 이대훈의 후배가 되고 싶어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를 택했다. 이대훈처럼 박태준도 고교 3학년 때 태극마크를 처음 달았다.

박태준은 2020 도쿄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한 이대훈을 모교인 한성고에서 따로 만나 원 포인트 레슨까지 받았다. 덕분에 박태준은 돌러차기, 나래차기 등 변칙 기술에다 이대훈의 전매 특허인 발 커트(발로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기술) 기술까지 습득했다. 박태준은 “(이)대훈이 형처럼 ‘발 펜싱’보다는 화끈한 태권도로 상대를 제압하겠다. 대훈이 형이 이루지 못한 올림픽 금메달의 꿈을 꼭 이루고 싶다”고 밝혔다. **피주영 기자**

29살 스타 골퍼 톰슨 “올 시즌 마치고 필드 떠날 것”

LPGA 통산 11승... 돌연 은퇴 선언 2017년 벌타 사건으로 논란 겪어 “원하는 결과 못 얻고 비탄 힘들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11승을 거둔 렉시 톰슨(29·미국)이 돌연 은퇴를 선언했다.

톰슨은 지난달 29일(한국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 골프장에서 열린 US여자오픈 기자회견에서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갖고 산다. 골프에선 이기는 것보다 지는 일이 많다. 계속 열심히 연습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비탄을 받아 힘들었다”면서 “올 시즌이 풀타임으로 뛰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골퍼를 시작한 두 오빠를 따라 자연스럽게 골퍼로 성장한 톰슨은 2011년 나비스

타 LPGA 클래식에서 처음으로 우승했다. 이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승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서 LPGA 투어를 대표하는 스타로 발돋움했다. 메이저 대회 우승은 2014년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른 게 유일하다.

그러나 톰슨은 2020년부터 우승권에서 멀어졌다. 올 시즌에는 6개 대회에서 4차례나 컷 탈락했다. 톰슨이 슬럼프에 빠진 데 이어 전격 은퇴를 선언한 배경으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톰슨은 실력은 출중했지만, 도덕성에선 늘 의심을 받았다.

대표적인 논란은 2017년 ANA 인스퍼레이션 최종 4라운드에서의 벌타 사건이다. 당시 톰슨은 마지막 날까지 단독선두를 달렸지만, 전날 3라운드 경기 도중 볼 마크를 원래 있던 지점보다 홀과 가까운 쪽으로 옮긴 사실이 시청자의



톰슨 11승을 거둔 렉시 톰슨.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 의사를 밝혔다. [AP=연합뉴스]

제보로 드러나 4벌타를 받았다. 톰슨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징계는 뒤바뀌지 않았고 결국 최종 라운드 연장전에 끌려 들어가 유소연에게 역전패했다.

이후에도 톰슨의 규정 위반 사건이 이어지면서 그에겐 비난이 쏟아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톰슨은 “골프를 한다는 건 많은 것을 요구하며 외롭기 짝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프로 골퍼로서 겪는 일들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아시아 선수들의 강세 속에서도 통산 11승을 거둔 미국 스타의 돌연 은퇴 선언에 현지 골프계는 매우 놀란 분위기다. LPGA 투어는 이날 곧바로 톰슨의 은퇴 선언을 속보로 전했다. NBC스포츠와 CBS스포츠 등 주요 외신도 “한 때 신동으로 불렸던 톰슨이 29세의 이른 나이에 은퇴를 선언했다”고 전했다. **고봉준 기자**

혜민한의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0%	0.0%	51.9%	42.9%	2.3%	0.0%
매우좋음	양호	노화시작	주의	나쁨	매우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기억력,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팔목 힘없다

피릿피릿 바닥 못누움

영치

sciatica 좌골신경통

엄드러진 통증

허리 누우면 통증

오래 앉아있지 못함

75°

30°

구부리기 힘들다

뒤로 피기 힘들다

손가락 쥐

Spasm of finger

toes cramps 발가락 뻣음

발목 뻣

오래된 것 쉽게 해결 됨

plantar aches

발바닥 통증

뒤꿈치

힘이 없어 집지 못함

뺨이쇠

피지 않음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Nerve Control SNC Scientific Nerve Control 뇌신경조절의학

혜민한의의원

뇌신경 조절 한의사 권진열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NerveControlSNC.com

일주금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도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영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er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6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력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력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광고는 출광료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양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양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양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6월 1일 토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 마케팅〉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종언어 가능하시
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
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
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종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엇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탐 여행사 바스타우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1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WUV대학교 입학처 (이종언어)
풀타임 or 파트타임
이력서제출: hr@wuv.edu

식당 장비 세일즈 하실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 하실분. 경력자 우대.
각종 지원 프로그램 과 수당.
문의: 571-332-2101(문자) 또는
edk.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첸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 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
능자, 취업비자/영주권 스폰서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물 및 서플라이 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종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 경험필수
-1년 이상 회계업무 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 원하시는 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 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종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 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함께 하실 분
luvacct1986@gmai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
디지'를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근무조건: 풀타임
-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 코디 및 기타
-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걸려 사유 없는 분
-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
함. 락빌/콜롬비아
이종언어, 신분에 걸려 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 첸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리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첸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ax Plus Full/Part Time
No exp.require 이종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리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풀타임/경험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문의: 703-850-1100/703-963-1234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 지역, MD
-경험 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 관리자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 지역, MD
-사무보조: 이종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닥터오피스 리셉션리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 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종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식당/제과/델리/식품〉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 위치: 메릴랜드 재선(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 업무: 사무직원(서류관리 및 인보이스 등)
- 시간: 주 32~48시간(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입출고 관리
- 시간: 주 48~52시간
- 유경험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 가능하신 분
연봉 5만(현직이 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취업기회)
영주권 스폰서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슈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ji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세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MD 글렌베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엘리엇 시티 Cafe June 에서 샌드위치 싸실 분
유무경험자, 풀/파트타임
443-386-0515

H Mart 또는 롯데에서 사시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현존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르뱅 베이커리 캐슈어 구합니다.
(오전/오후/주말)
703-263-2000

워싱턴DC IAD 공항 라운지 키친스태프
201-551-8861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703-798-7270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 (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물에서 5분거리
Text: 703-371-1263, 703-899-5098

볼티모어 지역에서 초보자 사시 & fried
chicken / 파트타임 & 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301-926-3638 / 301-538-4246

이발사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408-1119

첸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 가능 하신분)
703-750-2424/703-717-8256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으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0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일 토요일 중앙일보

페이셜/바디 마사지 같이 하실 분
 파트타임(2일), 라이센스 필수
 일당 \$280 + 팁(\$70-\$120)
 맥클린 소재 한의원
 703-839-0766 (문자 요망)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세탁/얼터레이션〉

픽업 바느질 하실 분(파트타임) / 엘리콧시티
 410-926-3200

세탁수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연락처: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스테포드 지역 픽업 수선 & 캐슈어
 Tel. 703-628-9100

픽업 스토어 카운터, 얼터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스테포드-루트윈 선상
 703-501-3335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메카닉 구함 (애난데일)
 571-243-9899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 정비소 메카닉 일하실 분 폴스 처지
 703-577-5866

첸들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카닉, 준메카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메카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하실 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에어컨 저렴한 판대합니다.
 창문형 3개, 이동형 1개
 703-635-9998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손사이드 / 매케닉 크루
 전화: 703-955-2827 / 540-680-1571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HD Plus Construction
 밀워키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메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 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배네트, 전기 기술자, 무경력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 가능하신 분 구함
 다. 월-금, 오후 3PM - 7PM
 센터빌 롯데 부근입니다.
 703 300 104

워싱턴 텔러스 공항 라운지에서 주말
 (토요일, 일요일) 오전에 일하실 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51-8861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센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락빌에 위치한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집합니다
 - 자격: 성악전공 / 지휘전공 / 음악전공(지
 휘경력)
 - 제출서류: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
 기소개서
 - 제출할 곳: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력자 환영
 240-393-2773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싸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여노소 환영.
 703-424-8596

Burke에 위치한 Gift Shop에서
 Mother's Day Week에
 가게 안에서 일하실 분과 Driver 구합니다.
 571-230-7686 Text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연락처: 443-621-2625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 파트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 고객마케팅관리 하실 분.
 신분부.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입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 분. 유·무 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 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 분
 연락: 240-903-0777

피아노 주일예배(11시) 반주봉사할 분
 웨어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래더로드.
 202-271-2726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 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 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리지 방 4 화 3. 쇼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콘도 렌트. 방2, 화2, 깨끗한 이층집. \$1,700
 702-622-8853

콘도 렌트, 센터빌 사거리 불링장 뒷편,
 남향집 조용한 지역, 큰 방 2개, 화장실 2개,
 H마트 맞은편 도보 10분, 단지 수영장 5분
 거리, 지정 주차 및 방문 차량 주차 우한대,
 8월 말 입주 가능. \$2,200 (전기세 별도)
 703-229-3947

페어팩스 웨그망 길에서 5분. \$1,150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 집. 880S.F.(새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 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링 주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플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학군
 410-599-1800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 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실 근방. (교통/학군 좋음)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 타운홈 H마트 앞, 월 \$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 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앤드류 노턴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카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 전체 렌트,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 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 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리지 방 4 화 3. 쇼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콘도 렌트. 방2, 화2, 깨끗한 이층집. \$1,700
 702-622-8853

콘도 렌트, 센터빌 사거리 불링장 뒷편,
 남향집 조용한 지역, 큰 방 2개, 화장실 2개,
 H마트 맞은편 도보 10분, 단지 수영장 5분
 거리, 지정 주차 및 방문 차량 주차 우한대,
 8월 말 입주 가능. \$2,200 (전기세 별도)
 703-229-3947

페어팩스 웨그망 길에서 5분. \$1,150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콘도 렌트. 방2, 화2, 깨끗한 이층집. \$1,700
 702-622-8853

콘도 렌트, 센터빌 사거리 불링장 뒷편,
 남향집 조용한 지역, 큰 방 2개, 화장실 2개,
 H마트 맞은편 도보 10분, 단지 수영장 5분
 거리, 지정 주차 및 방문 차량 주차 우한대,
 8월 말 입주 가능. \$2,200 (전기세 별도)
 703-229-3947

페어팩스 웨그망 길에서 5분. \$1,150

개인방, 화장실, 보안 보장, 빛 잘 들어오는
 703-762-6759

〈방 렌트〉

Woodstock, MD
 엘리콧시티 롯데에서 10분
 유틸리티 포함(전기, 수도, 인터넷)
 화장실/침대 구비 금연남성 환경
 443 983 1880 문자 주세요.

첸들리 타운홈 지하 욕실 1, 거실 1, 욕
 실, 간단취사가 가능 구일체, 금연, 직장인 또
 는 학생 환영. 메세지요망
 571-429-2222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NIST와 Shady Grove 병원 근처
 노스포드막 지역 반지하 방1개, 가구,
 부엌, 빨래방, 화장실 구비, 직장여성구함
 301-520-2916

개인주택 (반지하) 방세 놓음. 출입문 별도
 세탁기, 냉장고, 인터넷 Wifi good
 703-389-4615

애난데일 도서관서쪽 쪽으로 0.7마일
 콘도 방1 렌트, 취사가, 월 \$850(유료),
 남*금주*금연자 ■571-335-3739

애난데일 싱글홈 2층 방 렌트
 취사가, 즉시 입주 가능
 703-732-9153

센터빌 뉴 싱글하우스 자하 방 2개, Full Bath
 703-508-7743

Fair Oak INOVA 병원 옆 단독주택
 지하 방 렌트. Rt. 50, 286, H-mart
 가까운 곳. 화장실, 세탁기, 냉장고, 인터넷,
 남자/금연자 환영.
 571-236-0834 (Mrs. Roh)

페어팩스 VA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아주 가까운 곳. 직장인 환영
 703-419-0337

실악가 근처 싱글홈 방 렌트
 방1, 화장실 1, 냉장고, 인터넷/ 취사가 가능.
 출입문 별도. 금연자, 즉시 입주.
 571-243-6295

페어팩스 쾌적한 숲속 환경 다운 하우스,
 밝은 채광, 2층, 노바 7분, 조지메이슨 7분
 남학생 환영.
 571-554-4224 (문자 요망)

애난데일 방 렌트. 전망이 좋고 깨끗합니다.
 가구완비, 학생, 직장인 환영 (여자분)
 571-232-6052

애난데일 방 렌트(원룸스타일), 침대, 책상,
 냉장고, 전자렌지, 개인사워실, 키친 완비
 571-232-6052

아난데일 H-마트 뒤 화장실 딸린 큰방
 703-300-8669

저먼타운 MD 콘도 큰방1, 욕실 별도
 금연자, 롯데 10분 거리.
 702-622-8853

클리프턴 유니온빌 부근 싱글홈 반지하
 워크아웃 출입문 별도
 703-732-915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시니어(장애인)의 심신이 편한 생활을 위한 단층주택, 1층 콘도, 텃밭이 있는
 곳으로의 이전을 시니어 고객 전문 부동산인이 준비 상담해 드립니다.

복잡하고 답답하고 주차난이 심한 타운하우스 등에서 벗어나 병원, 그로서리,
 레스토랑, 교통(1-66, 29, 28번 도로)이 원활한 지역에 소재한 생활권으로
 이전함으로써 “삶의 질”을 올리고 심신의 피로에서 벗어나세요.

물건 거래 사례

▶ 1층 주택 (Ground Level)
 \$490,000 ~ \$570,000
 방3, 화2,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대지 0.3에이커 텃밭 (No HOA)

▶ 콘도 (Main Level)
 \$300,000 ~ \$370,000
 방2, 화2 / 1,000 ~ 1,200 SF, 주차 편리한 곳
 저렴한 콘도피 (\$350 내외, Water & Trash 포함)

▶ 골프장 커뮤니티 Luxury House / Condo
 \$510,000 ~ \$600,000
 방3(2), 화2,1 Garage Gate Community
 55+ Senior

▶ 근린, 전원생활, 주말농장
 \$350,000 ~ \$650,000
 도심으로부터 30분 ~ 1시간 근린 생활권,
 대지 1에이커 이상

* 기존 주택을 팔고 이주할 때 번거롭게 미리 집을 비우지 않아도 거래 가능합니다.
 * 집을 팔거나 사기 전에 집을 손볼 곳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전화 주세요.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지?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6월 1일 토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1

애난데일 K마트 뒤싱글 홈방1개, 주차넉넉
703-965-2343

센터빌 H+마트 근처 단독주택 방렌트
지하방+거실, 윗층 방하나, 여자분 환영
571-251-2885

센터빌 롯데 옆 타운홈, 방1개(욕실/화장실)
571-970-8048

Fairfax GMU 근처 Townhouse 에 방렌트욕
실 가구완비 \$800 여학생, 직장인 환영
703-981-7615 (문자)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오피스 렌트 (쉐어) 사용공간 27개,
리셉션, 화장실, 부속실, 스킨케어, 한의원, 네일,
병원 적합.
703-989-1933(애니)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뒤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703-835-7404 (Wifi 제공)

애난데일 미용실 내내 룸
(침대 2개와 티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가,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싱글/타운/콘도 매매〉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 렐름버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q.ft.,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한한 스텐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파울,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파울,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중인 진입로 독립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매릴랜드 로렐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 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 571-421-0863

버지니아 한인타운 성업중인
반찬집/떡집/레스토랑 팝니다. 1700sf.
한식, 일식, 중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703-989-430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일식집, 예쉬번 좋은 위치 무한 발전
가능한 곳 관심있는 분 연락 주세요.
703-951-2203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 지불
*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알렉산드리아 location 아주 좋습니다.
한국치킨가게 개인적 사정으로 내놓습니다.
문의전화: 703- 975-7718

1. 매릴랜드 자이안트열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2. DC.리뷰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 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nrcoin777@gmail.com

매릴랜드 중심에 9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 은퇴로 매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M,
의욕과 능력에 따라 확장 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

뷰티스플라이, 매릴랜드 자리잡힌
고급 흑인지역, SBA 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러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웰더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림.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천 2분거리),
MD 타주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입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 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보호자 봉사하실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들의 새로
운 삶을 위하여 봉사 바랍니다.
▶문의: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통역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Golf 레스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싼 가격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개인 및 그룹 미술 지도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시간조율 가능!
703-489-6567(문자바람)

〈중고품/기타매매〉

LG UHD AI ThinQ 65" 4K Smart TV \$230
거의 새것. TV original box/case. 문자요망
571-232-6071

2009년 커머셜 Ford 450/110,000마
일/\$55,000
301-751-1631

흰색 Vertical Blind(Triple Door 용)
80"H X110"W. 무사용 새것(Box)
Sale \$400 (Reg. \$800)
703-431-4521 (문자 주세요)

이사(downsizing)세일
-treadmill & bike machine \$100
-세라렘 \$100 -3bikes \$100
-tools \$100 -living room set \$300
문의 : 703-581-2631

에어컨디션 4대 팝니다. 6개월 사용했음
6,000/8,000 / 10,000 / 12,000(포타블
이동식) 새 것과 다름없음. 전부 \$250
703-635-9998 메세지 주세요(첼틀리)

고향동산 중앙에 있는 묘지 2자리 팝니다.
571-365-6757

-거실용 대형 카펫 \$1000
-도자기 꽃병(4세트) \$100
-교자상 2개(정사각형, 직사각형) \$100
-손수 만든 화장대 \$100
703-401-9905

중고 승용차 팝니다. 운행에 지장 없는 차
240-796-0093 (파시러는 분은 연락바람)

〈건축/페인트/마루〉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우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 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 회사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페임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버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보석〉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
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 MD)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풀청소,
응급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우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다시워시,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삿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방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하트앵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드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
▶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임업 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생활안내 줄광고 무료 게재요청
kdclass2018@gmail.com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AWARDED
Porch.com
HomeAdvisor
Best Home Improvement Contractor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Since 1988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 ▶ 욕,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 ▶ 플로밍,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무료견적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VA/DC/MD ↔ NY 정기운행
- 쓰레기 처리가능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93-2093	051-469-4191	310-767-56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귀국, 타주 차량운송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신속 안전 20년 전문!!
신용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 백금(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허리 통증
- 목이 뻣뻣한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애틀랜타 기타 지역

매매 매매 구인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성업중인 옷수선가게
 토렌스 PV지역, 3만5천
 년매 8만 (310)995-8925

수영장 청소권 매매
 팔로스버디스/토렌스
 (818)926-2095

한식당 매매
 한국 BBQ 식당
 테네시 주 위치
 매매가 69만불
 텍스트로 먼저 연락 요망
 (949)422-8332

죽/죽헬퍼
 성실하신분 환영
 중식당,숙식제공
 알래스카 주노지역
 (907)209-1920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트리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퍼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꿈 을 위한 약속
 중앙안내광고가 함께 합니다.
(213)368-2525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속성 · 전립선 비대증 · 한 번에 해결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바로고 하면 끝내주는, 남녀공용 성욕과 성감 개선제, 유희유 켈 #10 남성발기 O 링 #12 천연 그대로, 오리지널 닥터 속눈썹 링
1-213-210-9720 (제품 상담 및 주문)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한인 업소록 + 뉴스 통합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치로 Up to 40% 혜택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홈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견산상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로 발기 능력 속속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 ·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리주 동시어??!!**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주 전지역의 광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당뇨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40% ~ 49% 탄수화물 DOWN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을 SALE

banustory.com | 213.800.5749

1세대 저당 밥솥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솥 직접가열식

독점 Alexandria 킹타운 콘도

방2, 화장실1, 세탁기, 건조기,
계단없는 1층, 단지내 시설 좋음,
걸어서 쇼핑센터, 교통 좋음

\$329,900



독점 단독주택 Alexandria

리모델링한 부엌 (새 주방용기, Granite counter-tops),
리모델링한 화장실, 새 나무 마루,
New Paint, 방4, 화장실2, As-Is

\$589,900



독점 Annandale 콘도

방3, 화장실2, 남향, 밝은 집,
End unit, 1,475SF,
H-Mart 가까운 동네.

\$380,000



독점 Springfield 콘도

방2, 화장실2,
계단없는 1층, 나무마루, 업데이트

\$317,000



독점 Woodbridge \$2,750

2층 타운 홈, 엔드 유닛, 2,362 SF, 차고1, 고급 나무 마루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